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15호

Tuesday, October 15, 2024 A

## 호건 전 주지사 이해관계충돌 의혹

재임시 관계회사에  
“용역계약 관여 정황”

래리 호건(사진)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재임 기간 중 이해관계 충돌의 소지가 큰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호건 전 주지사가 8년간의 재임 기간 중 자신이 소유한 애나폴리스 소재 부동산 중개 회사의 고객 회사에게 부적절한 혜택을 주었다”고 폭로한 것이다.

호건 주지사가 오는 11월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상황에서 이같은 폭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타임의 기사는 민주당 후보인 안젤라 알소브룩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군수와의 TV 토론회 직전에 터져나와 민주당의 간교한 음모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타임은 “호건 전 주지사가 ‘구입가능한 저가 주택’ 지원 예산 중 40% 정도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회사의 고객 회사에게 돌아갔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같은 예산결정은 주지사가 포함



된 3인 위원회인 메릴랜드 공공사업위원회에서 이뤄진다. 호건 전 주지사는 이 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참여해 모두 다섯 차례의 관련 투표를 했다.

하지만 호건 전 주지사는 “완전한 거짓이며 그들이 늘 하던 식의 (더러운 네가티브) 정치”라고 반박했다. 호건 전 주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닌 이 기사는 (늘상 거짓으로 도배된) 이른바 ‘10월의 서프라이즈’에 불과하다”면서 “거짓 음모론을 퍼뜨려 선거 이슈로 만들려는 고약한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호건 전 주지사의 선거캠프 대변인은 “호건 전 주지사가 취임할 당시 동

생에게 회사를 맡기기 위해 신탁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맹목적인 백지신탁이 아니었으며 회사의 주요거래 내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한 계약조건이었다”고 항변했다.

정계에서는 최근 올소브룩스 군수의 부동산 재산세 탈세 의혹 사건이 불거진 직후 친민주당 진영에서 호건 전 주지사에 대한 음모론을 들고 나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계속 연방상원의회를 장악할지, 아니면 공화당이 새로운 다수당 지위에 오를지 판가름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은 민주당 코커스의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51석 대 49석으로 연방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번 선거에서 승자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방상원 의석은 모두 100석으로, 이번 선거에는 33석을 대상으로 치뤄진다.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계속 차지하려면 33석 중 23석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선거 지형이다.

김옥재 기자

## 트럼프 유세장 인근서 총기소지자 체포 “3번째 암살시도 막았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지난 7월과 9월에 두 차례 암살 위기를 모면한 가운데 이번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 인근에서 총기와 탄창 등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알린 보안관실은 “이 사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행사 참가자들의 안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13일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보안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9분 코첼라 밸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을 관리하던 경찰관들이 유세장 밖 차량 검문소에서 49세 남성 범 밀러를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검은색 SUV 차량에 타고 있던 그는 차 안에 산탄총과 장전된 권총, 대용량 탄창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그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돼 인근 구치소에 구금됐다. 그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하루 뒤 이런 내용을

보안관 채드 비엔코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의자 밀러의 범행 동기에 관한 질문에 “지금 내게 묻는다면 우리 경찰이 아마도 세 번째 암살 시도를 막았을 것”이라며 “우리가 또 다른 암살 시도를 막았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비엔코는 밀러의 차량 번호판이 ‘주권 시민’(sovereign citizens)이라고 주장하는 집단에 속한 이들이 만든 번호판과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집단은 극우 단체로 간주되고 정부와 법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는 이들이라고 말했다.

6면 ‘트럼프’로 이어집니다

## 북 “경의선 폭파쇼 준비”, 남 “선조치 후보고 지시”

무인기발 남북 긴장 고조

북, 전방 여단에 사격준비지시  
군 “도발 가능성에 만반의 대비”

북한이 정체불명의 무인기 침투를 “한국 군부 세력이 가담한 중대 주권침해 도발”로 규정하며 전방 전역에 실전 대비태세를 갖추자 군 역시 예하부대에 화력대기 태세 강화 등을 지시하며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이번 사건을 남북관계 단절을 위한

‘적대적 두 국가론’ 정당화에 적극 활용하는 가운데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의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준비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사흘째 담화를 내고 이제는 한국을 ‘잡종개’에 비유하면서 미국에까지 화살을 돌렸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실제 도발 가능성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북한군 총참모부가 국경선 일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 예비지시를 내렸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이었다. 그는 “(지시가 하달된 건) 전방 지역 전체에 걸친 여단이라고 생각한다”고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군 소식통은 “북한의 위협 고조에 따라 예하부대에 대북 감시경계 및 화력대기 태세 강화 지침을 하달하는 등 필요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정영교·이근평·이유정 기자  
2면 ‘북한’으로 이어집니다



군 감시망에 포착된 ‘북 경의선 도로 폭파 준비’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이 우리 군 감시망에 포착된 가운데 14일 파주시 점검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의 경의선 도로 위 구조물 인근에 흩더미(붉은 원)가 쌓여 있다. 남북 육로를 단절시켜 요새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작은 사진은 지난해 5월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같은 지역 경의선 도로. [연합뉴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봉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해입  
순금 아가 팔면지팔기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 가든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부흥사경회

어느덧 교회가 한 가정과 함께 개척이 되어 설립이 된지 30년이 지났습니다. 한해 동안 3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가을을 맞아 부흥사경회를 아래와 같이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을 초청합니다. 부디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결실을 맺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사: 김홍석 목사  
• 고려신학대학원 M.Div., Th.M.  
• Southern Seminary D.Min.  
• 펜스테이트 영광장로교회  
• 마산제일교회  
• 현, 안양일심교회 담임  
• 한국고신총회 직전총회장

- 일시**
- 10월 18일(금) 오후 7시 30분 “하나님의 세가지 뜻” (테살전 5:16-18)
  - 10월 19일(토) 오전 5시 45분 “여호와와 나의 목자” (시 23:1-6)  
오후 7시 30분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벤전 4:4-11)
  - 10월 20일(주일) 1부 오전 8시 15분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빌 4:1-7)  
2부 오전 11시 15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라” (눅 15:25-32)



**장소**  
가든교회당  
8665 Old Annapolis Rd.,  
Columbia, MD 21045



재미한인예수교 장로회(고신) **가든교회** 한태일 목사 외 교우 일동  
교회: 410-461-9621 • 목사관: 410-872-5970 • http://www.ghgpc.com

# 김여정 “미국이 길들인 잡종X” 막말… 내부 결속 선전전

“무인기 주범은 한국” 사흘째 담화 노동신문 “물리적 교전상태” 강조 군 “남북 갈라놓기 국면전환 돌입” 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 명분쌓기

### ▶ 1면 ‘북한’에서 이어집니다

총참모부가 “제도발 확인 시 즉시적으로 적의 특정 대상물들을 타격해야 하는 상황”을 상정해 “전시 정원 편제대로 완전무장한 국경선 부근 8개 포병여단을 사격 대기태세로 전환”한 데 따라 군도 만일의 경우 맞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할 준비도 마쳤다고 군은 밝혔다. 구체적으로 북한군이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그 뒤에서 준비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군 탐지자산에 포착됐다.

김여정은 이날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는 평양 무인기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 쓰레기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며 “핵보유국의 주권이 미국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해 침해당하였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한국군과 함께 미국까지 겨냥했다.

이처럼 북한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과 관련, 이성준 실장은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우리는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며 “군이 선(先)조치 후(後)보고하고 강력히 대응하도록 하는 훈련과 지침들이 하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명수 합참의장은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서해 해상경비 임무



북, 사격준비태세 속 해안포 포문 개방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에 대응한다며 국경 부근 포병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14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해안에 설치된 해안포 포문(붉은 원)이 열려 있다. [연합뉴스]



1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서해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 중인 천안함을 방문하고 있다. 2 지난 2024년 6월 동해선 가로등 철거작업 모습. [합동참모본부]

를 수행 중인 천안함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적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되 적 도발 시에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강력·끝까지 응징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언론보도를 통해 북한 상공의 무인기 출현에 대한 북한의 주장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유엔사는 현재 정전협정에 따라 이 문제를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무인기 사태와 남북 도로 폭파 준비 등을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분위기다. “남북을 완전히 갈라놓기 위한 국면 전환을 실시하면서 일련의 조치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노동신문은 14일 남측을 향해 위협을 쏟아낸 전날 김여정 명의 담화와 국방성 대변인 담화, 북한군 총참모부의 사격준비태세 지시 하달 발표 등을 1면에 게재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해당 담화에서 “지금 조선반도에는 한국군부패당의 무모한 용맹으로 말미암아 당장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었다”고 주장했다. “물리적으로 교

전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에서는 자그마한 불씨도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남북이 김정은이 주장한 ‘교전 중’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이 군사공격에 쓸 수 있는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다”고 주장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의 근거로 삼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고착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런 기류에 거부감이나 반발감을 가진 엘리트와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근거로 이번 무인기 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 역시 같은 맥락의 조치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경의선·동해선은 남북을 잇는 대표적 통로로 기능해 왔다”며 “이들 도로를 단순 무력화하는 걸 넘어서 폭파까지 한다는 건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군 당국은 북한이 경의선·동해선을 폭파하려는 정황을 지난 9일과 11일 사이 본격적으로 포착했다고 한다. 9일은 총참모부가 접경지역 요새화를 공식 발표한 날, 11일은 외무성이 무인기 평양 침투를 공개한 날이다. 남북 단절의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무인기 사태와 함께 일종의 ‘폭파쇼’를 꾸미는 것이 아니냐는 의미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대대적인 폭파를 진행하고 관련 영상과 사진을 통해 선전전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때처럼 이목을 끌면서 주민 각성을 유도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조선인민이 격노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2면에 게재하는 등 대남 선전선동도 이어가고 있다. 정보 유입 및 내부 유통이 이전보다 활발해진 상황에서 어차피 무인기에 평양 상공이 뚫린 사실을 숨길 수 없을 바에는 유리하게 이용하자는 속내가 깔린 것일 수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선 최고준엄(김정은)의 권위와 안전은 체제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라며 “남측 무인기 침범이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알려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영교·이근평·이유정 기자

## 북 “민간 무인기 변명 안통해” 한국군에 책임 돌리기

북 “활주로·발사대 필요한 기종” 전문가 “활주로 꼭 필요하진 않아” 군 개입 실익 없어, 가능성 낮아

북한이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연일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며 노골적으로 한국군 소행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

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정보가 제한적이라 선부른 판단은 어렵지만, 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우리 수도 상공에 침입했던 무인기는 민간단체가 임의의 장소에서

띄울 수 있는 무인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정한 발사대나 활주소가 있어야 이륙시킬 수 있는 무인기”라며 “이것을 민간이 날려 보냈다는 변명은 통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북한의 주장과 달리 국내 전문가들은 현대 무인기 기술이 다양하게 발달하면서 반드시 활주소가 필요한 건 아

니라고 지적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가 드론일 경우 군 당국이 실시간으로 탐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고도로 침투할 경우 기존 대공망에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북한 주장대로 한국군이 무인기 작전에 직접 관여했다면 그 자체로 정전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건 사실이다. 다만 현재 군의 반응 등을 종합할 때 전문가들은 해당 가능

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군이 국제규범까지 어겨가며 무인기를 보내 얻을 실익도 크지 않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요한 것은 이번 일로 북한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적개심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라는 점”이라면서 “내부 불만 해소용 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대북 메시지 발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근평·이유정 기자

**워싱턴 날씨 (°F)**

16일(수)	73~49	19일(토)	80~56
17일(목)	66~43	20일(일)	75~60
18일(금)	70~48	21일(월)	65~45

10월 15일(화) 70~49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RE/MAX EXECUTIVES

싱글홈 지하 렌트 월아웃 \$2,100

BURK 타운홈 3층 END UNIT

특별 \$660,0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드라이어

**SOLD**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lic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 구글 스마트 쇼핑 |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 문자마케팅 | 유튜브광고 | 소셜미디어 | 웹사이트 제작 | 온라인 쇼핑물 | 이메일 마케팅

# 연방법무부, 버지니아 선거정책 위한 소송 제기

## 유권자 명부 확정 법률 위배

연방법무부가 버지니아주가 연방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버지니아 정부는 선거일 90일 이전에 유권자 명부를 확정하고 수정을 금지하는 연방선거법령을 위반하고 있다.

글렌 영킨 주지사는 지난 8월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비시민권자의 투표 참여를 막기 위해 유권자 명부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 조치로 주정부는 유권



자 명부를 매일 단위로 조사해 투표권이 없는 허위 등록자를 가려내도록 했으나, 연방선거등록법상 선거일 90일 이전부터는 유권자명부에 대한 수정을 금지한다는 법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버지니아 주정부가 차량등록국(DMV)의 유권자 등록 데이터를 이용해 유권자명부를 수정하고 있으나, DMV 데이터의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

기 때문에 합법적인 이민유권자의 정당한 투표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방법무부는 영킨 주지사가 명부에서 삭제한 유권자 중 상당수가 시민권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킨 주지사의 크리스틴 마르티네즈는 “우리 주정부는 버지니아와 연방의 헌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선거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주정부는 유권자명부에서 삭제된 허위 유권자가 몇 명인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영킨 주지사는 자신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이전인 2022년 1

월부터 2023년 6월 사이 모두 6303명의 허위 유권자를 명부에서 삭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버지니아의 한 이민자 옹호단체도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와 제이슨 미야레스 검찰총장을 상대로 투표권 소송을 제기했다.

버지니아 여성이민유권자연대는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영킨 주지사 등 공화당 행정부가 합법적인 귀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막기 위해 각종 투표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세용 기자

## 카드빚 사상 최대... 절반이 연체 이자율 몰라

APR 금리 22.76% 최고 수준  
스토어 카드는 35%에 달해  
은행, 연체 수수료로 '돈벌이'



사진은 크레딧카드로 결제하는 모습.

크레딧카드 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소비자 2명 중 1명은 본인의 크레딧카드 연체 이자율(APR)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 플랫폼인 렌딩클럽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 47%가 본인이 사용하는 크레딧카드의 APR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이자율을 안다고 답한 소비자 중 34.4%는 현재 사용 중인 크레딧카드 연체 이자율이 연방준비제도의 기준 금리 움직임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크레딧카드 이자율도 올라가는 기본적인 금융 상식도 부족한 소비자가 많다는 걸 보여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융기관들이 올라가는 기준금리에 맞춰서 이자율을 올려왔다고 보도했다. 일례로 아마존이나 샘스클럽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신용카드를 발행하는 은행 싱크로나뱅크의 스토어 크레딧카드 연체 이자율은 34.99%에 달한다.

뉴욕연방준비은행(연은)이 최근 발표한 가계신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크레딧카드 부채 평균 연 이자율은 22.7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높은 연체 이자와 경기 부진으로 크레딧카드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뉴욕 연은은 올해 2분기 크레딧카드 부채의 규모가 1조1400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70억 달러 증가해 사상 최대치라고 발표한 바 있다. 즉, 소비자 1명당 6300달러의 카드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연체 이자율도 높는데 카드 발행사가 부과하는 월 연체 수수료도 높다. 정부는 수수료 상한선을 하향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올해

초 크레딧카드 부채 상황이 낮으면 매월 부과되는 연체료의 최고치를 현행 월 41달러에서 8달러로 내리는 규정을 발표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CFPB의 발표 직후 규정을 현행법 위반이라며 고소했고, 지난 5월 텍사스법원은 규정의 발효를 일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규정은 시행되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은행들이 크레딧카드 연체 수수료 인하에 반발하는 이유는 수수료가 은행들의 짝퉁한 수익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CFPB는 2022년 한 해 동안 은행이 크레딧카드 연체 수수료로 145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했다.

크레딧카드 부채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유권자 마을 잡기에 나선 대선 후보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모양새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유세에서 크레딧카드 최고 연체 이자율을 10%로 임시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TD뱅크의 애널리스트 자렛 셀버그는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CFPB의 크레딧카드 연체 수수료 제한이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원희 기자

## VA에 초대형 테슬라 매장 들어선다

### 헤이마켓 홈디포 옆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가 북버지니아에 초대형 딜러십 매장을 오픈한다.

버지니아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헤이마켓 홈디포 옆 부지에 테슬라 매장 입점을 허가했다. 모두 7.9에이커 부지와 5만2155제곱피트 실내면적으로, 300대 이상의 주차장을 갖추고 있다.

테슬라는 차량 딜러십 판매대계를 건너뛰어 온라인 주문과 선적, 배달 시스템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워싱턴 메트로 지역에는 버지니아 타이슨스와 메릴랜드 베데스다에 전시장만 갖추고 있으나 대규모 딜러십 매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테슬라 측은 최근 대형 딜러십 매장을 갖추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 외에도 현장판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테슬라 매장 개발업체는 헤이마켓 딜러십을 위해 모두 1677만 달러를 투자하고 정규직 직원 65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60%를 전기차로 총당하겠다고 밝혔으나 자동차 딜러들이 전기차 판매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테슬라는 기존 자동차 업계의 제조-판매-소비 3단계 유통 구조를 제조-소비 2단계로 줄여 별도의 자동차 딜러를 두지 않았다.

테슬라는 버지니아 등 9개주를 대상으로 자동차 직접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에 맞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존 관행을 깨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시장 저변을 확대할 목적으로 쇼룸을 병행한 딜러십을 공존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내에는 1만6천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자동차 딜러십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김윤미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옴니!**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옴니화재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최신형 X-Ray 완비  
교정 및 물리치료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매칭,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Care People Home Health**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폴스처치, 센터빌, 페어팩스, 뉴포트뉴스, 리치몬드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11/4-11/8 전화 예약 필수!  
**애난데일 사랑방 이전 (10월)**  
(로우 코스트, 베스트케어 치과 2층)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Richmond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 “미주중앙일보, 풀리처상 수상 꼭 이루기 바랍니다”

창간 50년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참석자들 종이비행기로 메시지  
본지에 응원과 당부 적어 날려

미주중앙일보의 앞으로 50년,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기대와 응원이 하늘로 비상했다.

10일 LA 한인타운 오드리 어마스 파빌리온에서 열린 미주중앙일보 창간 50주년 행사에서는 희망이 담긴 수백 개의 종이비행기(작은사진)가 연회장 가득 날아올랐다.

250명의 참석자는 미주중앙일보 측이 준비한 종이 비행기에 저마다 바람이 담긴 메시지를 적어 날려보내는 퍼포먼스를 함께했다.

행사가 끝난 후, 본지 편집국은 참석자들이 날려 보낸 수백 개의 종이 비행기를 하나하나 펼쳐봤다.

그 안에는 한인사회를 위해 달려온 미주중앙일보에 대한 감사의 말부터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내딛는 본지에 대한 응원과 당부의 메시지가 담겨 있



10일 미주중앙일보 창간 50주년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희망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김상진 기자

었다.

먼저, LA타임스의 테리 탕 편집국장은 “중앙일보는 LA의 활기와 문화에 필수적인 존재”라며 “지난 50년 동안 한인사회를 섬겨온 것을 축하한다”고 격려했다.

액티브 USA의 단 리 회장 부부는 “새로운 중앙일보의 무궁한 발전을 기

원한다”고 응원했다.

본지에 좋은 소식을 만들어달라며 기부금을 전달한 박충환 전 USC 석좌교수는 “우리의 신문으로서 독자들에게 매일 아침 작은 행복을 전해달라”며 따뜻한 메시지를 적었다.

유니스 송 한미연합회(KAC) 대표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한인들의 목

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활발한 언론으로 또 다른 50년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한 축하객은 “매일 아침 첫 번째로 읽는 것이 중앙일보다. 항상 잘하고 있다”며 신뢰를 전했고, “이민 40년 동안 중앙일보를 통해 좋은 정보를 얻으며 살아왔다. 감사하다”는 애정 어린 메시지도 있었다.

당부도 있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다루시길 바란다.” “영문 콘텐츠를 강화해 주류사회에서도 찾는 신문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제언도 남겼다.

언론계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인 풀리처상에 대한 독자들의 염원이 적힌 메시지가 가장 많았다. 본지는 올해 한인 언론 최초로 풀리처 위원회에 두 편의 기획 프로젝트 기사를 제출했었다.

이영송 전 LA평동회장 부부는 “풀리처상 수상을 기도한다. 중앙일보가 자랑스럽다”고 적었다. “풀리처상을 받는 최초의 한인 언론이 될 것”이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있었다.

유머와 재치 있는 메시지를 보낸 축하객도 있었다. “50년이 뭐냐, 500년 가자!”, “달려보자, 중앙일보! 광고비 팍팍 쓰겠다”며 재치 있게 격려한 이들도 있었다. 중앙일보로 4행시를 지은 축하객도 있었다. “‘중앙’에 ‘일’등 ‘보’석 같은 중앙일보, 화이팅”이라는 응원의 문구도 있었다.

이 밖에도 “50년을 넘어 100주년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 “최고의 신문으로 늘 높이 날길” “2세와 3세에게도 1등 언론이 되길 바란다.” “LA 뿐만 아니라 미국을 대표하는 한인 커뮤니티의 대표 언론으로 앞으로도 번창하길 바란다”며 다채로운 격려 메시지가 있었다.

미주중앙일보는 지난 50년간 독자들하고 함께 동고동락해왔다. 이날 축하객들이 쏘아 올린 기대와 바람은 임직원 가슴에 새겨졌다. 그 힘으로 앞으로의 50년을 걷는다. 다시 한번 힘찬 날갯짓을 시작한다.

장수아 기자

## “사랑하기 때문에 48년 구독했어요”

창간 기념식 이모저모

50년 사진전·테이프 커팅행사

미주중앙일보의 50주년 행사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축하하는 축제의 현장이었다. 과거를 기념하고, 희망찬 미래를 기대했다.

▶지난 50년의 역사

10일, 오드리 어마스 파빌리온 연회장 밖에서는 중앙일보의 50년 역사를 담은 사진전이 열렸다. 1974년 창간 당시 20여 명의 LA 임직원들이 구 사옥 앞에서 촬영한 흑백 기념사진과 신문 하나가 단돈 10센트였던 시절의 신문 광고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1975년 중

앙일보가 주최한 우량 선발전대회부터 1992년 폭동 당시 M16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중앙일보 기자들이 편집국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대기하던 모습까지, 한인 사회의 중요한 순간마다 중앙일보는 함께했다.

14번째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 이원기 변호사는 사진을 감상한 뒤 “많은 언론사를 변호해봤지만, 미주중앙일보는 중립적 시각을 유지하며 신사적인 언론으로 한인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해왔다”고 평가했다.

▶48년 신문 구독한 애독자

이날 행사의 축하 케이크 커팅은 미주중앙일보의 최장기 구독자 어명환(84)씨, 김영완 LA 총영사, 그리고 케

빈 김 백크오브호프 행장이 함께했다. 어 씨는 48년째 미주중앙일보를 구독하고 있는 애독자다. 장기 구독의 이유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답해 참석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케이크 커팅 순간, 참석자들은 휴대폰 라이트를 켜고 흔들며 중앙일보 50돌 생일을 함께 축하했고,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앞으로 50년을 위하여”

중앙그룹의 흥정도 부회장은 단상에 올라 중앙일보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독자들과 광고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50년 동안 감사했다. 앞으로의 50년을 위하여”라



흥정도(오른쪽) 중앙그룹 부회장이 테리 탕(오른쪽 2번째) 편집국장 등 LA타임스 관계자들과 양 신문사간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며 축배를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잔을 부딪치며 중앙일보의 밝은 미래를 응원했다. 또한 중앙일보는 그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회사 발전에 기여한 서니

황 김보 장학재단 이사장, 김영석 3플러스 로지스틱스 회장, 박충환 전 USC 석좌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장수아 기자

# DARCARS®

## LEXUS OF SILVER SPRING

###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 한강 노벨상 이은 겹경사... 미주 한인 해냈다

김주혜씨 톨스토이 문학상  
장편소설 '작은 땅의 야수들'

한인 작가 김주혜가 장편소설 '작은 땅의 야수들'로 2024 러시아 톨스토이 문학상(야스나야 폴랴나상) 해외문학상을 수상했다.

김주혜는 1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볼쇼이극장에서 열린 톨스토이 문학상 시상식에서 '작은 땅의 야수들'을 러시아어로 번역한 키릴 바티긴과 함께 해외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톨스토이 문학상은 톨스토이 탄생 175주년인 2003년 삼성전자 러시아법인 이 러시아의 '레프 톨스토이 박물관'과 함께 제정한 상으로 러시아 최고 권위의 문학상으로 평가받는다.

김주혜는 해외문학 부문 최종 후보 10개 작품 중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울가 토카르츠크 등을 제치고 영예를 안았다.

이날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해



'작은 땅의 야수들'을 쓴 한인 작가 김주혜가 1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볼쇼이극장에서 열린 2024 톨스토이 문학상(야스나야 폴랴나상) 해외문학상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주혜 작가 제공]

외에서 한국 문학의 저변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제강점기 한반도를 배경으로 한 한인 작가의 소설이 톨스토이-도스토옙스키의 나라 러시아에서 인정받은 것이다.

김주혜의 '작은 땅의 야수들'은 일제

식민지 시절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서 투쟁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풀어낸 장편소설로, 한국에는 2023년 다산북스를 통해 출간됐다. 러시아에서는 바티긴의 번역으로 인스피리아에서 출간됐다.

다산북스에 따르면 심사위원 파벨 바신스키는 기자회견에서 이 작품에 대해 "여기에는 짐승들이 있다. 그중 호랑이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나는 이 작품을 알렉시 톨스토이의 '갈보리로 가는 길'에 비교하겠다"며 "정말 잘 쓰였고, 투명하고 성숙한 젊은 작가로는 놀라운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김주혜는 수상 발표 전 다산북스에 "영광스럽다. 개인적으로 늘 러시아 문학의 철학에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유산인 호랑이를 한국 독립의 상징이라고 세계적으로 알린 기회가 된 것 같고, 더 넓게는 우리 문화와 역사의 긍지를 높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후보에 오른 소감을 밝힌 바 있다.

김 작가는 1987년 인천에서 태어나 1997년 미국으로 이주했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한 뒤 미국의 한 출판사에서 2012년까지 근무했다. 2016년 영국 문학잡지 '그란타'에 단편소설 '보디 랭귀지'를 발표했다.

## 한인 시니어 사망사고 스쿠터 뺑소니범 체포

LA 한인타운 인도에서 전동스쿠터를 타고 불법으로 질주하다 60대 한인을 치어 사망케 한 30대 백인 여성이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검거됐다.



LA경찰국(LAPD)은 지난 8일 테빈 니콜 에일랜드(32·사건)를 뺑소니와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에일랜드는 지난 9월 12일 오후 제임스 M 우드 블러바드와 사우스 웨스트모어랜드 인근에서 스쿠터를 타고 시속 18마일의 속도로 달리다 도니 김(65)씨를 친 뒤 뒤따라오던 남편과 함께 현장을 떠났다.

충돌 이후 김씨는 현장에서 병원 이송 대신 응급처치를 택했다. 그러나 그는 귀가 후 통증을 호소하고 구토를 하는 등 상태가 악화해 이날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끝내 병원에서 숨졌다. 검거된 에일랜드는 발목에 추적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이 허용됐다. 에일랜드는 사고 후 인스타그램 등에 "스쿠터를 타다 눈가에 사고로 상처가 났다"며 "최악에 날에 살아남았다. 다시는 스쿠터를 타지 않겠다"고 적는 등 사망 피해자에 대한 걱정이나 사과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에일랜드는 지난해 6월 펜타닐 소지와 차량 절도 미수로 입건된 적이 있으며, 집행유예 위반 혐의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 90대 한인 살해 용의자 체포

애틀랜타 경찰이 10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벡헤드 노인아파트 한인 김준기(90)씨 피살 사건에 연루된 여성 용의자 1명을 체포했다. 김씨가 흉기에 찔려 숨을 거둔 지 17일만이다.

11일 오전 애틀랜타 경찰(APD) 공보국은 지난달 25일 접수한 김준기씨 살해 사건에 대해 65세 흑인 여성 경비원 자넷 윌리엄스를 10일 구속 송치했다고 본지에 밝혔다. 이 용의자는 현재 풀턴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돼 구금 중이다. 경찰은

"APD 공공치안본부에서 사건을 맡아 처리했으며 별다른 사고 없이 체포해 살인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본지가 풀턴 카운티 지방법원과 APD에서 받아본 체포영장, 카운티 교도소 구금기록을 종합해 보면 애틀랜타 범행지에서 15마일, 차량 30분 가량 떨어진 디케이더시에 거주하는 윌리엄스는 피해자가 살던 노인 아파트의 건물 경비원으로 일했다. 그는 경찰 사건 접수일 25일 하루

전날인 24일 오후 3시 15분께 피해자 얼굴을 포함한 상체에 50~60번 칼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 범행 동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한 것은 건물 안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녹화 화면을 통해서다. 피해자 집을 방문한 용의자의 옷에 짙은 혈흔이 묻은 점과 오른쪽 허벅지를 다쳐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 등이 정황근거로 포착됐다. 영장 진술서를 작성한 맨달 맥클루어 형사는 "피해자 사망 후 CCTV에 포착된 용의자는 다소 스트레스를 받은 듯한 얼굴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분실된 김

씨의 소지품은 신분증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갈색 지갑과 미국프로야구(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모자가 유일하다. 윌리엄스는 경비원이라는 직업 덕에 2주일 넘게 수사망에 잡히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25~26일 현장 주변을 탐문하던 경찰 주변에서 서서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진술하던 주민에게 직접 질문을 건넸으며 피해자 거주 호실을 다시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 3일에야 주거지 및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찾아온 경찰이 허벅지 상처의 경위에 대해 묻자 "지난 주말 차고 문을 열다 다쳤다"고 주장했다. 장채원 기자

## '이승만 전문배우' 권성덕 별세

드라마 '야인시대', '영웅시대', '서울 1945' 등 TV 드라마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역할을 연기했던 원로배우 권성덕(사진)씨가 지난 13일 별세했다. 84세. 연극계에 따르면 고인은 식도암 투병 중이었다. 고인은 1963년 극단 '광장' 단원으로 연극 생활을 시작했고, 1972년 국립극단에 입단해 1994~1996년 국립극단 단장을 역임했다.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발인은 16일 오전 9시.



정혜정 기자

## 종업원상해보험 1억불 사기 로버트 리 등 4명 중범 기소

1억 달러 규모의 종업원상해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로 의사가 낀 사기 조직이 기소됐다. 11일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데이비드 피쉬(55), 마틴 브릴(78), 로버트 리(61), 브리제슈 탄투와야

박사(57)는 총 13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에는 환자 추천, 범죄 공모, 허위 및 사기 청구, 보험 사기 등이 포함된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수년 동안 환자를 특정 병원이나 의사에게 보내면서 종업원상해보험 회사에 진료 대금을 청구하고 그 대가로 불법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피쉬는 이전에 두 차례 종업원상해보험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그는 남가주 부상 근로자(SCIW)라는 관리 회사를 설립해 마케팅, 청구, 수급 등의 의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속해서 불법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 조직은 또한 샌디에이고 신경외과 의사 탄투와야와 협력해 부상 근로

자 의료 그룹(IWMG)을 설립해 특정 병원이나 클리닉에 환자를 보내고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챙겨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3년 동안 종업원상해보험 회사들에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진료비를 허위 청구했다.

한편 미국 보험 사기 방지 연합에 따르면, 매년 약 3086억 달러 규모의 보험 사기가 발생한다.

정윤재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절인 마이클 장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 메디케어

“자녀는 멀고 에이전트는 가깝다”

임강호 보험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2025 메디케어 플랜가입 및 변경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4년 10월 15일 ~ 12월 7일

상담내용

- 1960년 출생인들의 메디케어 최초 등록
- 2025년 중단되는 플랜과 플랜들의 혜택 변경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보험회사 일치화 (VA 해당)
- 처방약 보험 혜택의 변경
- 추가혜택의 변경

- 같은 보험일지라도 매년 혜택이 같지는 않습니다 -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10] organization which offer [84]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1-800-MEDICARE, or your local Statw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임강호

Licensed Agent

상담전화

(703) 989-3031

11325 Random Hills Rd., #650,  
Fairfax, VA 22030

Sponsored by



# “대선일에 ‘급진좌파들’ 혼란 일으키면 군대 동원해야”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당일(11월5일) “급진좌파”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킬 경우 군이라도 동원해서 진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 방영된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 인터뷰에서 대선일 상황이 어떨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더 큰 문제는 외부에서 들어와 우리나라를 파괴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며 “매우 나쁜 사람들, 일부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 급진적 좌파 미치광이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일에 그들이 시위 등 행동에 나설 경우 “매우 쉽게 처리(진압)되겠지만 필요하다면 주방위군, 또는 정말로 필요하다면 군에 의해 처리될 것”이라며 “왜냐하면 그들(주방위군이나 군)은 그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일부 트

‘의회폭동’ 선동 트럼프, 민주당 지지자 의한 소요사태 가능성 거론 국경 경합주 애리조나 유세에선 불법이민 쟁점화…“순찰대 1만명 증원”



애리조나에서 국경순찰대원들 지지 받으며 연설하는 트럼프

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1·6 사태)가 올해 대선 결과에 따라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한 폭력 시위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사실상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

해 해리스 부통령 캠프 이언 샘스 대변인은 “트럼프는 같은 미국인들이 외국의 적들보다 더 나쁜 적이라고 주장하고, 그들을 향해 군사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번 발언은 “자유와 안보를 중시하는 모든 미국인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인 애리조나주 프레스콧에서 가진 유세에서 집권시 국경순찰대원 1만명을 더 채용토록 할 것이라며 대선 경쟁자인 민

주당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불법이민자 유입 문제에 공세를 집중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국경순찰대원 급여 10% 인상, 국경순찰대원의 이직을 막기 위한 잔류 보너스(retention bonus)와 입사 보너스(signing bonus) 1만 달러 등도 공약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공약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국경순찰대원들을 채용 및 유지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약 2만 명의 국경순찰대원들이 일하고 있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은 대원을 50% 대폭 늘리는 방안이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입국자 대규모 추방과 남부 국경 폐쇄를 주요 이민 관련 공약으로 제시해왔는데, 이날 공약은 탄숙 인력 강화 및 사기 진작에 방점을 찍었다.

불법이민자 문제가 심각한 남부 국경주 가운데 한 곳인 애리조나에서 열린

이날 유세에서는 국경순찰대원 노조 관계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좌우에 선 채 지지의 뜻을 표했다.

대선이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한때 하루 1만명 이상을 기록한 불법 입국자 입국 문제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최대의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는 양상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경 문제를 총괄하는 이른바 ‘국경 차르’(국경 문제의 총책임자의 의미) 역할을 맡았지만 인도적 측면의 난민 수용과 이민자를 통한 노동력 수급, 국경 질서 유지라는 3가지 과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들어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포괄적 국경안보강화법안을 좌초시킨 데 이어 독자적인 국경안보 강화책을 제시하며 지지층 결집 및 중도층 득표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 NASA, ‘생명체 가능성’ 조사 목성 위성 유로파 탐사선 발사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조사할 항공우주국(NASA)의 무인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Europa Clipper)가 지구를 떠나 긴 여정을 시작했다.

유로파 클리퍼는 14일 낮 12시 6분(동부시간, 한국시간 15일 오전 1시 6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이 우주선의 임무는 유로파가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췄는지 자세히 살피는 것이다.

탐사선은 지구를 떠난 이후 5년 반 동안 약 29억km를 이동해 2030년 4월 목성 궤도에 진입한 뒤 유로파 주변을 근접 비행하며 유로파의 환경을 살살이 조사할 예정이다.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는 적도 지름이 3천100km, 달의 90% 크기로 태양계



유로파 클리퍼 발사 준비

에서 여섯 번째로 큰 위성이다.

과학자들은 유로파 표면의 15~25km에 달하는 얼음층 아래에 염도가 있는 바다가 존재해 생명체가 서식할 만한 이상적인 환경을 갖췄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

## 해리스-트럼프,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 동시 출격

대통령 선거(11월5일)가 22일 앞으로 다가온 14일 양당 후보가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로 동시 출격한다.

부통령실과 공화당 대선 캠프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이리카운티에서 유세를 하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주의 필라델피아 교외에 위치한 오크스에서 경제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유권자들과의 대화 행사)을 개최한다.

초박빙 양상의 이번 대선에서 펜실베이니아주는 승부를 결정지을 7개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격전지로 꼽힌다. 할당된 선거인단 수(19명)가 경합주 중 가장 많은데다, 그간의 여론조사에서 1~2% 포인트 안팎 차이로 우열이 엇갈리면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되고 있는 곳이다.

러스트벨트(rust belt·쇠락한 오대호 연안 공업지대)인 펜실베이니아



카말라 해리스, 도널드 트럼프

주는 2000년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4연승(2000~2012년)을 안긴 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직전인 2020년 대선에서 현직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득표율 1.2% 포인트 차로 펜실베이니아를 내줬고, 결국 대선 패배의 쓴 잔을 마셨다.

절치부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에 “다결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5일 그는 자신이 7월 유세 때 피격당한 장소인 펜실베이니아주 서부 버틀러를 다시 찾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등과 함께 대규모 유세를 벌였고, 9일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인 같은 주 스크랜턴에서 유세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경제와 민생에서 화석에너지원 개발 부문 의존도가 큰 점을 감안해 자신이 집권하면 적극적으로 셰일가스 증산에 나설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과거 한때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이유로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쇄법(fracking)에 반대했다가 ‘허용’으로 입장을 바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공격 포인트이기도 하다.

해리스 부통령은 증산증을 위한 각종 세제 지원 방안과 친노조 정책을 내걸고 현지의 노동자 표심에 구애하고 있다.

▶ 1면 ‘트럼프’에서 이어집니다  
다만 비엔코는 밀러가 암살을 시도했다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비엔코는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여러 개의 다른 이름을 가진 여권과 가짜 번호판을 단 미등록 차량, 장전된 총기를 가지고 나타났다는 것”이라고 강조

했다.  
하지만 지역 매체 프레스 엔터프라이즈에 따르면 당사자인 밀러는 이날 남부 캘리포니아 뉴스 그룹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트럼프 지지자라고 주장하면서 보안관이 암살 시도를 언급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밀러는 “이런 혐의는 완전히 헛소리”

라며 자신이 네바다 클라크 카운티의 공화당 대표에게서 코첼라 밸리 유세의 특별 초대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이 2022년 살해 혐의를 받기 시작한 뒤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입했으며, 네바다와 캘리포니아주의 총기 법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역 매체는 그가 공화당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2022년 네바다 주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력도 있다고 전했다.  
비밀경호국(SS)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건이 경호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위험에도 처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며 “현재 연방(범죄 위반 혐의로)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밀러는 5천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당일 석방됐으며, 내년 1월 2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에 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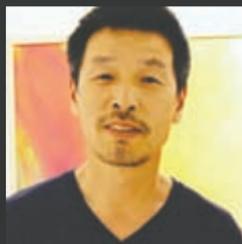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 18th Annual Korean Art & Soul



길을 걷다  
Journeying Through life



Artist, Park Soon-cheol  
Professor at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 Invitation Exhibition

### Where

Aichi Arts Center  
1-13-2 Higashisakura, Higashi-Ku  
Nagoya-shi, 4618525

### When

Tuesday, Nov. 12 ~ Sunday, Nov. 17, 2024  
10am ~ 4pm

### Organizer



Korean American Cultural Arts Foundation (KACAF)

### Contact

Japan: 81-908-544-5335  
Tel: (703) 200-9390

# 이스라엘 방공망, 헤즈볼라 드론에 뚫렸다... 군인 수십명 사상

미국 "사드 수일내 배치" 발표 직후  
빈야미나 군기지, 자폭드론에 피격

이 탱크, 레바논 유엔부대 강제진입  
유엔총장 "전쟁범죄" ... 철수도 거부



13일 이스라엘군 탱크가 북부 국경을 넘어 레바논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 남부 유엔평화유지군 주둔지에 강제 진입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이 이란과 친이란 무장세력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방공망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와 운용 병력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이 중동 갈등에 점점 더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사드 포대를 수일 안에 배치하면서 이를 운용할 병력 약 100명도 함께 보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포대는 이스라엘의 통합 방공망을 보강할 것"이라며 "이는 이란의 추가 미사일 공격에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거주 미국인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철필 같은 의지"라고

설명했다.

통상 미국은 자국민이 공격당할 경우 강력히 보복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의 전직 장교 해리스먼은 WP에 "이란 미사일이 미군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면 미국은 이란에 물리적 반격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란은 반발했다. 압바스 아라치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엑스(X)에 "미국이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이스라엘에서

운영하기 위해 군대를 배치해 미군 장비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사드 배치 발표 직후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자폭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뚫린 이스라엘은 군인 4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매체는 13일 저녁 헤즈볼라가 드론 2대로 북부 소도시 빈야미나의 군기지를 공격해 군인 4명이 사

망하고 약 60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두 대 모두 이란제 드론으로, 최대 시속 370km로 120km에 떨어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한 대는 이스라엘 방공망에 걸려 격추됐지만, 나머지 한 대가 군 기지를 타격했다. 헤즈볼라는 타격 직후 "이스라엘 방공망을 교란하기 위해 드론 외에 수십 발의 로켓을 함께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아이언돔' 등 촘촘한 방공망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본토를 타격 당하는 건 이례적이다. 뉴욕타임스는 "헤즈볼라의 회복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방공망에 구멍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13일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UNIFIL) 주둔지를 부수고 탱크를 진입시켜 국제사회의 논란을 촉발했다. 이스라엘은 그간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완충 역할을 하는 유엔평화유지군의 철수를 주장해왔다. 논란이 일자 이스라엘은 유엔평화유지군 주둔

지 인근에 헤즈볼라의 무기고 및 미사일 발사대와 이어진 땅굴이 있었다며 외신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하지만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평화유지군에 대한 공격은 국제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 위반이고, 전쟁범죄도 될 수 있다"며 규탄했다. 또 이스라엘의 병력 철수 요구에 대해서도 "유엔의 깃발은 계속 휘날릴 것"이라며 거부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북부를 봉쇄하고, 식량과 물 등 구호품 제공을 중단하는 작전을 검토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퇴역 장성들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제안한 계획에 따르면, 봉쇄구역에는 식량 외에 의료 지원도 차단하고 거주민의 경우 하마스 무장대원으로 간주해 사살할 수도 있다고 한다. 미국은 이 계획에 반대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미 계획 실행에 들어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현준 기자

## 중국 또 대만포위 훈련... '양국론' 외친 라이칭더에 경고

(대만 총통)

"독립세력에 강력한 충격과 공포"  
더 촘촘한 '아나콘다 전략' 구사

14일 중국군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건국기념일(쌍십절) 연설 중 '양국론(兩國論)'을 문제 삼아 또다시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에 나섰다.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리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5시 SNS 공식 계정을 통해 "14일 동부전구는 전구 육·해·공·로켓군 등 병력을 조직해

대만해협과 대만섬 북부, 남부, 섬 동쪽에서 '연합 리젠(演習-날카로운 칼)-2024B 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 대변인은 "이번 연습은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의 독립 도모 행동에 대한 강력한 충격과 공포이자, 국가 주권과 국가 통일을 수호하는 정당하고 필요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은 지난 5월 라이칭더 총통의 취임 연설을 문제 삼아 '연합 리젠-2024A연습'을 한

지 5개월 만이다. 홍콩 명보는 항모 라오닝함이 대만 동쪽 서태평양으로 향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관영 중국중앙 TV(CCTV)가 공개한 훈련 배치도를 보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지역에서 훈련이 진행되며, 중국군 병력과 대만 주요 도시의 거리도 가까워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대만을 느리지만 확실하게 봉쇄하는 '아나콘다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만 국방부는 오전 6시 10분 "국방부는 이런 비이성적 도발 행위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적절한 병력을 보내 대응했다"며 "실제 행동으로 자유 민주를 수호하고 중화민국(대만)의 주권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성명에서 "중국이 일방적인 연례 연설에 군사적 도발로 대응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협을 확대한다"며 "중국이 대만해협과 더 넓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할지도 모르는 추가 행동을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 노벨 경제학상 '국가간 불평등' 연구 아제모을루 등 교수 3인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는 국가 간 불평등 연구에 기여한 다룬 아제모을루(57), 사이먼 존슨(61), 제임스 A. 로빈슨(64) 등 3인에게 돌아갔다.

아제모을루는 튀르키예 태생으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다. 영국 태생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존슨도 MIT에 몸담고 있으며, 역시 영국 출신인 로빈슨은 미국 시카고대 교수로 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4일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인정해 이들에게 노벨 경제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코브 스펠손 왕립과학원 경제과학

상 위원장은 "국가 간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며 "수상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올해 수상자들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변형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정치·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연구를 해왔다.

특히 아제모을루와 로빈슨은 국내에서 정치인들 사이에서 널리 읽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공동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한국가가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포용적인 정치·경제 체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립과학원은 "수상자들은 무엇이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변형에 미치는지에 대한 혁신적 연구에 기여해왔다"며 "제도가 변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들의 통찰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지지하기 위한 노력이 경제 발전 촉진에 중요한 진전 방향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노벨 경제학상은 1901년부터 시상된 다른 5개 부문과 달리 1969년부터 수여됐다. 노벨 경제학상으로 통칭되지만 스웨덴 중앙은행이 창립 300주년을 맞아 제정한 상이어서 정식 명칭은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는 경제과학 분야의 스웨덴 중앙은행상'이다. 스웨덴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의 뜻



왼쪽부터 다룬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

에 따라 인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노벨상은 지난 7월 생리의학상부터 이날 경제학상까지 올해 수상자 발표를 모두 마쳤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마이크로RNA 발견에 기여한 미국 생물학자 빅터 엠브로스스와 게리 러브킨이, 8일에는 물리학상 수상자로 인

공지능(AI) 머신러닝(기계학습)의 기초를 확립한 존 홉필드와 제프리 힌턴이 선정됐다.

9일 화학상은 미국 생화학자 데이비드 베이커와 구글의 AI 기업 답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 경영자(CEO) 존 켄(39) 연구원이 받았다.

10일 문학상은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처음으로 수상했다. 11일 평화상은 반핵 운동을 펼쳐 온 원폭 생존자 단체 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日本被爆團協-니혼히단교)에 돌아갔다.

노벨상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에 열린다. 물리학·화학·생리학·문학·경제학상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평화상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수여된다. 수상자에게는 메달과 상금 1천 100만 스웨덴 크로나가 주어진다.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구인** 리셉티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 [dcyeclinic@yahoo.com](mailto:dc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nt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http://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약값같은 부동산 비키리** **10월 HOT 리스팅**  
바이어들의 희소식, 모기지 이자율이 많이 내렸습니다!

60만불 대출시 30년 용자 월납부금 \$3600 + 세금 + 보험  
50만불 대출시 30년 용자 월납부금 \$3000 + 세금 + 보험  
40만불 대출시 30년 용자 월납부금 \$2400 + 세금 + 보험

**부동산 관련 모든문의는 북버지니아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 에이전트, 비키리 부동산에 문의 해주세요.**

**급매** \$69만  
우드브리지  
니콜 평영  
상급층  
평4+  
화3 차고2

**\$56만**  
달콤한 콘도  
평2개 2층짜리  
교통좋은 메트로역 인접  
타운하우스 콘도

**임대**  
애쉬번 타운홈 \$3500  
방3+화3차고 2 즉시 입주가능

**비엔나 \$3500**  
방3+/화3 차고 1 즉시 입주가능

**릭빌 \$3,500** 방3+/화3 차고 1

**타운홈** 방3+화3, 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화3, 차고2 **\$80~\$85만불대**

**타운홈** 방3+화3 **\$45만불~\$60만불**

**타운홈** 방3+화3, 차고1 **\$60만불대**

**타운홈** 방4+화3, 조지메이슨 대역 부근 **\$630,000**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웰빙모아 Wellbeing More

## 가을맞이 특별세일

20% 할인  
여성의류, 극세사 이불, 모자, 가방, 내의, 강아지옷, 이불, 소품

## 침구세트 세일 20% off

사계절 면이불 • 베개 • 이불패드

가을, 겨울옷  
신상  
대량입하!



## 공진단 • 침향환 특별세일

<p><b>20% 할인</b></p>  <p><b>종근당 침향환 프리미엄</b></p> <p>침향은 나무에 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생성되는 진액이 수백년간 굳어져 만들어진 귀한 원료로 세계 3대 향 중 유일한 식물 원료입니다. 종근당 명품 침향보화는 이 귀한 침향의 함량을 22%로 만들어집니다.</p>	<p><b>20% 할인</b></p>  <p><b>김소형 침향환 녹용</b></p> <p>침향분말 22% 함유 16가지 전통 원료(오가피, 뽕나무잎, 진피, 참당귀, 천궁, 감초, 작약, 황금, 건조차가버섯, 사양발꿀, 녹용, 홍삼, 로얄젤리, 산삼배양근)와 침향 22%를 최적의 비율로 배합</p>	<p><b>20% 할인</b></p>  <p><b>광동 침향환</b></p> <p>광동이 자체연구를 통해 얻은 황금비율 배합으로 18단계 원료 품질 검증 17단계 생산공정, 511가지 원료 품질 규격 검사, 10단계 완제품 품질 검사를 거쳐 만들어집니다.</p>	<p><b>20% 할인</b></p>  <p><b>천호식품 천진단</b></p> <p>천하를 다스리는 힘 귀한 천진단은 청정지역 뉴질랜드산 녹용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친 침향, 산수유, 참당귀 등으로 만들어집니다.</p>	<p><b>20% 할인</b></p>  <p><b>광동 경옥고</b></p> <p>동의보감의 전통방식을 기반으로 인삼, 복령, 생지황, 꿀 등 엄선된 약재만을 원료로 사용하여 섭씨 98도에서 120시간(5일)을 달이는 중속과정을 통한 노력과 정성을 담아 만든 한방 영양제입니다.</p>	<p><b>20% 할인</b></p>  <p><b>황실의 보약 산삼 공진단</b></p> <p>사향/ 산삼/ 녹용/ 당귀/ 산수유</p>
---	--	--	--	--	---

### 풍기홍삼 직영점 입점기념 스페셜 세일

### 종근당

### 천호식품

		
---	---	---

						
---	---	---	--	---	---	---

한미우체국 택배 대리점    전화 주문시 당일 발송    모든 행사는 애난데일과 센터빌 동시 실시

<h3 style="color: #008000;">애난데일점 (703) 256-5500</h3> <p>7133-D Columbia Pike, Annandale, VA 22003    <span style="background-color: yellow; padding: 2px;">자이언트 &amp; 곰바우 식당 옆</span></p>	<h3 style="color: #008000;">센터빌점 (703) 830-7755</h3> <p>5961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span style="background-color: yellow; padding: 2px;">센터빌 롯데앞, 신라제과, 하하핑크 사이</span></p>	<h3 style="color: #008000;">영업시간</h3> <p>9:30am ~ 7pm <span style="background-color: yellow; padding: 2px;">(365일)</span></p>
--	---	---

# 한 “김여사 라인 존재해선 안돼” 용산 “대통령 라인만 있다”

(한동훈)

내주초 예정...재·보선 후 날짜 확정 용산 “면담” 친한 “독대” 형식 잇갈려 친윤 “한동훈, 도곡동 7인회 쇠신을” 국감 뒤 김여사 전담 제2부속실 출범

10·16 재·보궐선거 이후 열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남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라인’을 둘러싼 논쟁이 여권 내부에서 들끓기 시작했다. 당정 관계의 분수령이 될 윤·한 회동을 앞두고 기선 제압을 위한 싸움이 불붙은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14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은 10·16 재·보선 후 일정 조율을 거쳐 내주 초 빠른 시일 내에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두 사람의 만남을 ‘면담’으로 표현해 한 대표가 요구한 독대(獨對)와는 차이를 뒀다. “시기와 장소, 형식 등을 다 상의해야 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야기다.

대통령실이 만남의 형식에 여지를 뒀다면 한 대표는 의제를 두고 용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난 한 대표는 ‘대통령실 인적 쇠신 요구가 김건희 여사 라인을 지목한 건가’란 질문에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분이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이 오해하고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런 라인은 존재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용산 “윤 한 만나야 문제해결 시작” 그간 ‘로키(Low-Key)’로 일관하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대표. [연합뉴스]

대통령실도 한 대표의 이날 비판에는 골장 반응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뒤통수가 맞았을 것이어서 인적 쇠신인가. 여사 라인이 어딴가”라며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다. 최종 인사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유언비어 같은 얘기를 확대하고 휘둘리면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반응은 한 대표의 발언 중 대통령의 인사권을 겨냥한 표현에 대한 것으로 국한됐다. 큰 틀에서 한 대표 발언에 대한 무대응 기조를 유지한 셈이다. 여권 내에선 대통령실의 무대응 기조는 16일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용산 책임론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돼 왔다. 여당 텃밭 격인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민주

당 후보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과 한 대표가 충돌해 당정 갈등이 일어나고, 선거에서 질 경우 그 책임론이 대통령실을 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참모들 사이에선 20%대 초반에 머무르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로키 대응의 이유로 거론된다. 이날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 7~11일 성인 2009명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25.8%로 해당 조사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선 두 사람이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나 친한계도 ‘여사 라인’이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국민 오해’ 등의 표현을 빌려 대통령실에 조치를 요구한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국민들은 ‘김 여사가 국정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란 의혹을 갖고 있다”며 “여사 라인의 여부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국민 여론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쇠신 요구가 여당 대표로부터 나오고 이를 대통령이 수용하면 국민이 다시 신뢰와 희망을 가지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윤계는 공개 반발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자기 세를 규합한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절로 굴러오는 것이 아니다”며 “이제까지 이런 알약만 정치공학은 여지없이 실패해 왔다”고 적었다. 이후 한 대표가 “권 의원 같은 분이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에 앞장섰던 분인데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반박하자, 권 의원은 재차 글을 올려 “‘도곡동 7인회’ 같은 참모진이 모은 의견이 겨우 그 정도라면 인적 쇠신은 대표실이 우선”이라고 맞받았다. ‘도곡동 7인회’는 한 대표 측근 그룹을 지칭한 것으로, 김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한남동 7인회’에 맞대응하는 취지의 표현이라고 한다.

여권에선 재·보선 직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재·보선 직후가 아니라 다음 주 초로 만남 일정을 잡았다는 것은 서로간 생각할 시간을 갖자는 것 아니냐”며 “재·보선 결과에 따라 만남의 톤이나 형식이 윤곽을 잡을 것이다. 새로운 판이 시작되는 건 그때부터”라고 말했다.

**제2부속실, 대통령 집무실과는 다른 층**  
한편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일정을 담당할 제2부속실 설치 공사에 착수했다.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의 집무실과는 다른 층에 위치하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청사가 비좁아 귀빈 접견실과 회의실 등이 위치한 층에 공간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며 “과거 청와대 제2부속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작다”고 말했다. 제2부속실엔 김 여사의 집무실과 외빈 접견실, 제2부속실장에 내정된 장순철 현 시민사회2비서관 등이 머물 장소가 마련된다. 제2부속실 출범 시기는 내달 1일 국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가 유력하다. 김기정·박태민·윤지원 기자

## 명태균 “대통령 부부와 6개월간 매일 스피커폰 통화” 주장

(2021년)

“인수위 면접관 해달라 부탁하기도” 여당 지도부, 명태균 방지법 추진 야당, 공수처에 명씨 등 수사 주문



공수처 필요하다 ‘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앞줄 왼쪽)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공수처가 존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들어보라”는 질문에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씨가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사람들 면접을 보라고 했다”며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명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권 일각에서 자신을 “여의도 허풍쟁이 사기꾼 1000명 중 한 명”(김재원 최고위원)이라 비난한 데 대해 날을 세웠다. 그는 “김재원씨는 아크로비스타 ×××호 대통령 자택에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느냐”며 “바깥에 묶어 놓은 개 젓냐”고 했다. 명씨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 부부

와 처음 연결된 것은 2021년 6월 18일”이라며 “그 이후 같은 해 12월 대선 경선 승리까지 6개월간 (윤 대통령 부부가) 거의 빠짐없이 스피커폰으로 매일 아침 통화를 걸어왔다. 두 분이 같이 들으셔야 하니까”라고 설명했다. 또 “대선 이후에 대통령과 여사가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을 보라고 그랬다”며 “경교육감 임태희, 그사람 이력서 누가 본 줄 아냐. 저다”고 주장했다. 각종 보도를 통해 비선 실세를 자처해 온 명씨가 직접 라디오 생방송에 나와 입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명태균 방지법’을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정치 브로커’ 같은 사람들을 모두 정리하고 걷어내자”며 ▶여론조사 공표 기준 상향 ▶조작에 따른 처벌 형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법안 개정을 제안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정권 다 끝나간다. 소신껏 수사하라”(서영교 의원), “차장님, 차장님까지 나서서 전담수사팀을 꾸려 압수수색하라”(이성윤 의원)며 명씨 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주문했다. 공수처는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최근엔 명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여론조사 비용을 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성지원·윤지원 기자

**SELFOTO STUDIOS**  
나만의 사진관

**가을 특선 10월 한달 동안**  
**사진 2장 추가 무료 서비스!!!**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 동물 사진 | 영정 사진 | 아기 사진 | 기념일 사진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추억만들기!!!**  
나만의 맞춤형 사진관을 경험해보세요!  
인생 샷 찍어보세요!

온라인 예약

www.Selfotostudios.com

##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수잔 김**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347-3788

# 친한이 지목한 '한남동 라인'... 김여사 지인·캠프 측근 거론

(김여사 라인 전·현 용산 참모)

“대통령 부부 삼촌·이모라 부를 정도” 지목된 관계자 “여사 전화번호 없어” 친한 “한남동 라인, 윤·한 갈등 배후” 당내 “비선의혹, 선거 앞 도움안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인적 색신 대상으로 밝힌, 이른바 ‘한남동 라인’은 과연 누구일까. 친한계에선 김 여사의 오랜 지인부터 대선 캠프 측근까지 약 10명 안팎의 전현직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을 거론하고 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1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 라인을 여의도에서 ‘한남동 라인’이라고 표현한다”며 “비서관·행정관

직책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적절한 정치를 하는 사람을 지목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부총장은 “그런 분들이 여사의 지시 여부와 무관하게 호가호위하면서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남동 라인으로 우선 거론되는 이는 A비서관과 B행정관이다. 둘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오랜 인연이 공통점이다. 금융권 출신 A비서관은 10여 년 전 개인적인 모임에서 김 여사를 만난 뒤 꾸준히 교류해 왔다고 한다. A비서관은 SNS로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나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반박하는 등 우군(友軍)을 자처했다.

B행정관은 윤 대통령 지인의 아들로 대선 캠프에서 윤 대통령 수행을 담당했다고 한다. 전당대회 기간 한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행정관은 지난 6월 유튜브 ‘서울의 소리’에 “B라든지 현 정권에 그냥 납작(앞드리든지) 해가지고 자리를 받아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 친한계 인사는 “B행정관은 윤 대통령 부부를 과거 ‘삼촌’ ‘이모’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워서 뒷선에서도 쉽게 대하지 못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을 떠난 C·D 전 비서관도 한남동 라인으로 분류된다. C 전 비서관은 대선 기간 동안 코바나컨텐츠와 국회 출신 등으로 구성된 팀을 이끌면

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네거티브 대응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의 친척인 D 전 비서관은 대선 캠프에서 회계팀장을 지냈고, 취임 초반 부속실에서 김 여사 관련 업무를 맡았다.

4·10 총선 직후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을 언론에 흘린 창구로 지목된 E비서관도 한남동 라인이라는 게 친한계의 주장이다. 친한계는 F행정관이 한 대표에 대한 비판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한다. F행정관은 전당대회 기간 한 대표를 비판하는 경쟁 후보의 SNS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친한계가 한남동 라인을 향해 거칠

게 날을 세우는 것은 한 대표의 정계 입문 뒤 불거진 윤·한 갈등의 배후가 이들과 여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남동 라인으로 지목된 인사는 “김 여사 전화번호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다”며 “민주당의 악의적인 공세에 발을 맞춰주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비선의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후보는 물론 당과 정부에 하나도 도움이 될 게 없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야당을 겨냥한 비판이 모두 당정 갈등에 매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훈 기자

## 국회가 재판관 후보 지명 않자... 헌재, 스스로 해결 비상조치

재판관 3명 모레 동시퇴임 자구책  
이진숙 외 사건도 정상심리 가능  
탄핵·위헌결정엔 6인 만장일치 필요  
법조계 “식물기관 전략 막은 것”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오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재판관 9명 중 3명이 임기 만료로 동시 퇴임해 헌재 마비 사태가 초래되는 걸 막은 것이다. 후임 재판관을 선출해야 할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 몫을 다투느라 후보자조차 지명하지 않으며 책임을 방기하자 헌재 스스로 모법 조항을 중단하는 비상 조치를 취한 셈이다.

1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돼 있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지난달부터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재판관 퇴임으로 심판절차가 멈추고 직무정지가 무기한으로 늘어질 위기에 놓이자 지난 10일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3명의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해 재판관의 공식 사태가 되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는 사실상 재판 외의 사유로 재판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고, 피청구인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또 직무정지 사태가 장기화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후에도 이 위원장 탄핵 심판은 물론 다른 모든 사건도 정상 심리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그 후 분안심판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이미 침해된 후이므로 이를 회복하기 힘들고 이는 전원재판부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라며 “(그렇게 되면) 재판관 권위로 인한 불이익을 그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아직 후임 재판관 후보자를 단 한 명도 지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명 이후에도 인사청문회 통과 등 절차를 밟는 데 통상 한 달 이상 걸린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임에도 재판관 공석의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존엄사 등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국회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식물 기관으로 전략할 수도 있다”며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헌재로서 현실적인 판로를 연 셈”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파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퇴임을 앞둔 재판관들도 합심해 해결하고 나가려는 것은 과감하고 멋진 결정”이라고 평했다.

이날로 효력이 정지된 ‘7명 이상 출석’ 조항은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으로,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들이 퇴임한 후 공석 사태가 길어지면 나머지 6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를 이뤄야만 결정이 가능하다. 또 이날 결정은 가처분으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최종 결정은 아니다. 조항의 효력은 이 위원장이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정지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짚박한 논평을 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의 이날 결정을 환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지연 전략이 무산됐고, 남아 있는 재판관들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가 가능해졌다”며 “헌재가 부당한 탄핵 시도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윤종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재 스스로 입법행위에 준하는 결정을 했다는 점, 국감 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등 추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는 점 등에서 아쉽다”며 “향후 헌재의 심리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현정·김정연·강보현 기자

## 주중대사에 김대기 내정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 “대통령 최측근 원한 중국에 우호 메시지”

“폭넓은 국정경험 갖춘 경제관료”  
한·중 관계 중요성 고려한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신임 주(駐)중국 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인사 발표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는 윤석열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국정 경험을 갖춘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무역 갈등 해소 등 중국 경제 협력 관련 경험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중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전직했을 뿐 아니라 수준급의 중국어 구사력도 갖췄다”며 “양국 간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격변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외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이명박(MB) 정부에서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지냈다. 김 내정자는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비서실장 재임 중에도 윤 대통령과 한·중 관계에 대해 많은 토론을 했다”며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 후보군에 없던 김 전 비서실장의 주중 대사로 발탁했다. 상하이밍 전 주한 중국대사가 7월

귀임한 뒤 중국 대사가 공식인 상황에서 내린 전격적 결정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중국도 대사에 인사에 성의를 표하라는 메시지가”라고 말했다.

서울대 교수 출신인 정재호 현 주중대사의 후임자로 정부 최고위직 출신 인사를 앉힌 것도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 내년 11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보낸 우호적 메시지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싱가포르 방문 당시 ‘싱가포르 렉처’에 강연자로 나서 “중국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굉장한 중요한 국가임이 틀림없다”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은 매번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대사로 오기를 희망했고, 이번 인사는 그런 요구를 일부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중 대사에 임명된 건 MB정부 당시 류우의 전 실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실장 내정에 대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과 소통을 유지하고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을 촉진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주한 중국대사 임명에 대해서는 “헌재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이진숙



김대기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GALAXY REALTY 갤럭시부동산 2024 여름 마켓에 울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매매 / 렌트	금액	설명	주소	기간	세입자
★ 주택	McLean, VA \$900,000	헌재 3년 렌트 (\$4,250) 렌트 끼고 살 투자자. 매달 25일정 기관에서 다음 달 렌트비를 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함	★ 8*03 Fallstaff Rd, McLean, VA	1년	Non Korean
★ 사업체	Fairfax, VA \$3,500	Mantua ES, Frost MS, Woodson HS 권 싱글하우스 렌트. 부엌, 화장실 upgrade 된 집, 10월 1일 입주 가능	★ 822* Wakefield Dr, Arlington, VA	3년	주재원
★ 사업체	델리샵 (DC) \$150K	DC 내 좋은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 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 822*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Non Korean
★ 사업체	세탁소 (MD) \$300K	MD, 코로나 때 주변 세탁소 문 닫아 장사가 더 잘되는 세탁소	★ 1*11 Fallbrook Ln, Vienna, VA	2년	주재원
			★ 1*02 Abbey Way, McLean, VA	3년	교민
			★ 22*3 N Underwood, Falls Church, VA	2년	교민
			★ 7*32 Old Dominion Dr, McLean, VA	2+1년	국제기구
			★ 1*89 Dawson St, Vienna, VA	2년	교민
			★ 2*02 Scotch Haven Dr, Vienna, VA	2년	주재원
			★ 7*37 Backett Wood Ter, McLean, VA	3년	주재원
			★ 1*40 Kensington Rd, McLean, VA	1년	주재원
			★ 7*51 Tremayne Pl, McLean, VA	1+1년	주재원
			★ 411* 11th St, Arlington, VA	2년	주재원
			★ 1*33 Colonial Hills Dr, McLean, VA	3년	국제기구
			★ 2*69 Oakborough Sq, Oakton, VA	18개월	주재원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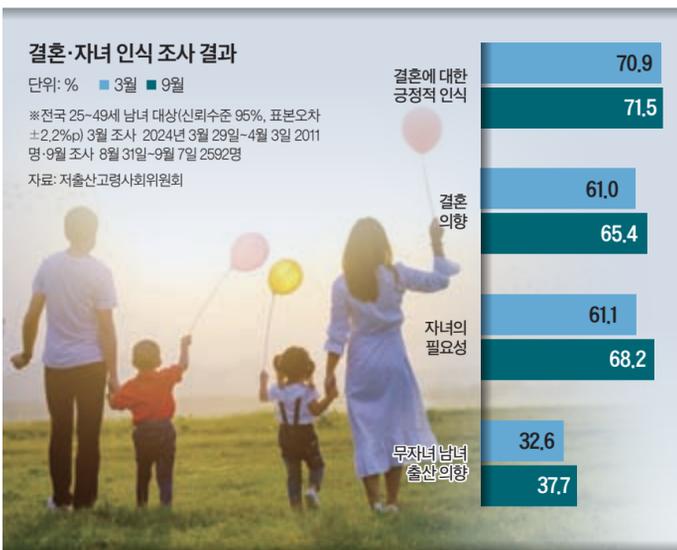
# 25~49세 “아이 있어야” 6개월 만에 7%p 증가

(61.1~68.2%)

**저출산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혼의향 있는 남녀도 61~65.4% 이상적 자녀 수는 평균 1.8명 쏠아

결혼·출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6개월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이런 내용의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저고위는 지난 3월에 실시한 것과 같은 내용을 8월 31일~9월 7일 전국 성인(만 25~49세) 25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저고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 자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70.9%에서 6개월 만에 71.5%로 소폭 올랐다. 결혼 의향이 있다는 미혼 남녀도 4.4%p(61~65.4%) 증가했다. 특히 30대 여성은 11.6%p(48.4~60%)나 늘었다. 자녀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도



7.1%p(61.1~68.2%) 증가했다. 특히 만 25~29세 여성이 13.7%p(34.4~48.1%)나 늘었다.

출산 의향을 묻는 질문에 ‘있다’는 대답은 자녀가 없는 남녀에서 지난 3월 32.6%였는데, 이번에는 37.7%로 5.1%p

증가했다. 반면에 자녀가 있는 남녀에서는 소폭(10.1~9.3%) 감소했다.

아이를 추가로 낳을 의향이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자녀 양육비용 부담’(46.1%)과 ‘자녀 양육이 어렵게 느껴져서’(40.7%) 순으로 많이 꼽았다. 국민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1.8명으로 지난 3월 조사와 동일했다.

저고위는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운 요소를 지원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만든다면 저출생 추세 반전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이 포함됐다. 응답자의 64.6%가 정부 대책을 ‘들어봤다’ 또는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향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확대·강화해야 할 정책으로는 ‘엄마·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라는

대답이 84.4%로 가장 많았다. ‘소아의료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83%), ‘긴급 이용자를 위한 돌봄기관 서비스 확대’(81.3%),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추가 확대’(80.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등 범국가적 노력이 국민 인식에도 조금씩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한다”며 “확대·강화 요구가 높은 정책은 지속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과를 “정부 정책 효과 덕분”으로 해석하긴 이르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인식 조사는 어떤 사람들이 조사 대상이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정책 효과를 보려면 함께 출산율 변화 등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수현 기자

## “시험지 사진 찍는데 제지 없었다”... 연세대 논술 논란 확산

**문제지 사전배포 4분뒤 찍힌 사진도 시험 부실관리 정황 속속 드러나**  
**연세대 “유출자, 사교육 업체 의심”**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고사 문제지를 촬영해 유출한 수험생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험 관리 부실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연세대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만한 행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제시험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14일 수험생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논술 시험 당시 한 고사장 감

독관이 1시간여 일찍 자연계열 논술시험지를 배포해 사전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 내용이 언급된 게시글은 크게 2가지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자이너즈’엔 “1문항에 정사각형 4개 등분되는 직사각형 그림 있다” “백터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시글이 시험 시작 전 올라왔다. 연세대는 해당 게시글에 대해 유출이 아니라고 봤다. “도형이 아니라 텍스트가 중요한 ‘확률과 통계’로 도형 형태와 개수로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이유였다.

연세대는 자연계열 논술시험지를 찍은 사진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13일 수험생 커뮤니티 등에서 공유되기 시작

한 해당 사진에는 1번부터 6-2번 문항까지 나와 있었다. 또 연세대에서 인정한 4-2번 문항의 표기 오류도 있었다. 한 수험생은 중앙일보에 “시험이 끝난 뒤 지인으로부터 ‘이제 사진이 곧 퍼질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공유 받았다”고 말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해당 사진은 시험 종료 이후 시험지를 걷을 때 찍힌 것으로 사전 유출이 아니다”며 “사진을 찍은 수험생을 특정했고, 사교육 업체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진 유출자에 대한 부정행위로 인한 탈락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험 정보 유출 여부와 별개로 논술



**한달 후면 수능... 집중 또 집중**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앞둔 14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뉴스1)

시험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험지 사전 배포 당시 수험생들의 휴대전화를 꺼두게 했다”는 연세대 입장과 달리 실제로는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13일 커뮤니티 ‘디자이너즈’에는 또 다른 시험지와 수험증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정보에는 시험 당일인 12일 오후 12시 59분에 찍혔다고 표시됐다. 해당 시각은 시험지가 사전 배포된 지 4분이 지난 때였다. 시험지가 담긴지가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글쓴이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찍는데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세대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제시험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논술고사는 대학교의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찬규 기자

## “한국 알고 싶어 한글 배우고 자원입대 했죠”

**육군 제35보병사단 이지창 상병 시민권 포기하고 한국 국적 취득**

“한글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시민권을 포기하고 지난해 12월 18일 육군에 자원입대한 제35보병사단(사단장 김광석 소장) 백마여단 이지창(20) 상병의 말이다.

14일 35사단에 따르면 현재 운전병으로 복무 중인 이 상병은 2004년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나 2022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7년간 말레이시아에서

살았다. 한국어보다 말레이시아어와 영어가 익숙한 환경이었다고 한다. 이 상병은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인생에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와 군에 입대했다”고 했다.

이 상병이 귀국을 결심한 건 고등학교 졸업 후 말레이시아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다. 그는 이때 “내 뿌리인 한국을 알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했다. 이후 현지에서 한국인이 많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면서 한글을 익혔다고 한다. 이 상병은 “집에서도 말레이시아어·영어보다 한국어를 쓰며 생활화했다”고 말했다.

모병제인 말레이시아에선 본인이 자원하지 않으면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상병은 지난해 귀국 후 말레이시아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입대 후 병기본(병진급제인기본훈련평가) 교재에 있는 군사 용어 중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병기본은 육군 병사가 다음 계급으로 진급하기 적절한지 평가하는 훈련을 말한다.

35사단 측은 “아직 한국어가 서툰 이 상병은 영어로 번역해 교재 내용을 이해하거나 주변 전우의 도움을 받아 지

난 9월 1일 병기본을 통과해 상병으로 진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 복무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내년 6월 17일 전역 후에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

이 상병은 “부모님은 어린 시절부터 제가 ‘대한민국 아들이고, 대한민국 피가 흐르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한글을 배우면서 정겨운 조국의 향기를 맡고, 이곳저곳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들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김남주 백마여단장(대령)은 “조국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군인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출전수범하고 있는 이 상병과 함께 근무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제35보병사단 백마여단에서 운전병으로 복무 중인 이지창 상병. [사진 제35보병사단]

**구강교육치과**

#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료 의사가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료의사상 수상

무보험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감이 **구강교육 유튜버**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버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dent**

#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 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 한강이 불 댕긴 텍스트힙 ... '한해 1.7권' 독서문화 바뀔까

(Text Hip·독서 열풍)

(종이책)

국민 57%, 한해 1권도 안 읽던 나라  
노벨상 수상 뒤 한강 책 84만부 팔려  
직전까지 역대 최악 불황서 대반전  
“한강 넘어 출판계 전반에 활기 기대”



주인은 없어도 인산인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독립서점 '책방 오늘' 앞에서 시민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이 운영하는 '책방 오늘'은 12일부터 "당분간 쉬어간다"며 영업을 중단한 상태지만 시민의 발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한강 작가의 소설은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예약을 걸어 놓았어요. 나온 김에 아이 참고서랑 제가 읽을 책 몇 권 샀습니다.”

13일 저녁 8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만난 40대 여성 김모씨는 “오늘 쯤엔 책이 있을까 해서 왔었다”며 아쉬운 기색을 내비쳤다. 한강 작가의 매대에는 책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옆쪽 한강 작가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 매대는 책을 들춰보는 사람들로 붐볐다.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출판계는 역대급 호황을 맞았다. 대표작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 한강 작가의 책들은 지난 10일 수상 이후 14일 오후 2시까지 교보문고(31만부)·에스24(33만부)·알라딘(20만부) 등 총 84만부가 팔렸

다. 온라인 서점 관계자는 “2016년 부커상 수상 때도 한강 작가 책이 많이 팔렸지만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하루 매출이 2003년 도서정가제 시행 후 역대 최고를 찍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 작가와 관계 있거나 그가 언급

한 다른 책들도 무섭게 팔려나가고 있다. 교보문고에서 한승원 작가 작품 판매량은 노벨상 발표 후 3일간 110배 상승했다. 한강 작가 인터뷰가 실린 문학잡지 '악스트(Axt)' 2022년 1/2월호는 잡지 판매 1위에 올라섰다. 한강 작가가

아버지에게 쓴 편지에서 언급한 미국 시인 메리 올리버의 『긴 호흡』 판매량도 크게 늘었다. 출판사 마음산책의 정은숙 대표는 “편지 내용이 알려지면서 14일 아침에만 1000부 이상 주문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출판계의 이런 ‘한강 르네상스’가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노벨상 발표 직전까지 출판계에선 ‘역대 최악의 불황’이라는 말이 인사말처럼 오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2분기 가구(1인 이상)당 서적 구입비는 월평균 9272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았던 2020년(2분기 1만1227원)보다도 17.4% 감소한 액수다. 한 가구가 한 달에 책 사는 데 채 1만원도 안 쓴다는 이야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3년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9~2023년 8월) 성인 종합독서율(교과서·참고서 등을 제외한 일반 도서를 한 권이라도 읽거나 들은 사람 비율)은 43%로, 1994년 조사 개시

이래 가장 낮았다.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량은 3.9권, 종이책으로 좁히면 1.7권에 불과했다.

전반적인 책 소비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최근 반등 움직임도 감지된다. 가구 서적 구입비는 지난해(2분기 8077원)와 비교하면 늘었다. ‘한강 효과’가 반영되면 이런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출판계는 최근 MZ 사이에서 독서를 ‘힙한’ 문화로 즐기는 ‘텍스트힙(Text Hip)’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데서 희망을 찾기도 한다. 텍스트힙이란 글자(text)와 멋지다(hip)를 결합한 단어다.

“한강 관련 작품만 팔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김기욱 에스24의 도서사업팀장은 “톨스토이상을 수상한 김주해 작가의 도서 등을 찾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문화와 출판계 전반에 활기가 불어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화 출판평론가는 “어릴 적부터 책을 가까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희·임성빈 기자

## 한강, 적자에도 '책방 오늘' 6년째 여는 이유

“글 안 쓰면 독립서점 운영하고 싶다”  
직접 큐레이션, 좋은 책 발굴에 열정

한강의 노벨문학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취재진이 몰려든 곳이 있다. 서울 서촌 골목에 있는 독립 서점 '책방 오늘'. 한강이 운영하는 3평 남짓한 작은 가

게다. 이곳에는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부터 시민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급기야 이틀 뒤인 12일 “당분간 쉬어간다”는 공지가 붙었지만, 주말까지 인종샷을 찍고 축하 쪽지를 남기려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책방 오늘’은 2018년 9월 서울 양재

동에서 문을 열었다. 지금 자리로 옮긴 건 지난해 7월. 한강은 이 서점에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고 한다. 한 출판계 관계자는 “직접 책을 큐레이션 하는 것은 물론 매대에 붙일 작품 소개 노트를 쓰기도 했다”며 “대형 서점 베스트셀러 목록에 없는,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

는 좋은 책을 발굴하는 데 큰 열정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강은 2016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독립 서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글쓰기를 포기해야 하면 생계를 위해 어떤 일을 하겠냐”는 질문에 “그런 일은 상상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서울 외곽에 작은 독립 서점을 운영하고 싶다”고 답했다.

‘책방 오늘’ 매니저는 2022년 문학 웹진 ‘비유’ 인터뷰에서 “만성적으로 큰 적자를 내고 있다”며 “자본의 논리와 상반되는 경영을 한 해석 연장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점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장편 『이중 하나는 거짓말』을 펴낸 김애란 작가의 저서와 김 작가가 추천하는 책을 함께 소개하는 큐레이션 이벤트 ‘작가의 서가’를 진행한다. 홍지유 기자

## 홍석현·김민기·정영선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

(중앙홀딩스 회장) (극단 학전 대표) (조경설계 서안 대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고(故) 김민기 극단 학전 대표, 정영선 조경설계 서안 대표가 올해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을 받았다.



홍석현, 김민기, 정영선

서울대는 14일 글로벌 공학교육센터 대강당에서 제78주년 개교 기념식을 열고 홍 회장을 비롯한 '제34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상자'를 발표·시상했다.

홍 회장은 “자랑스러운 모교에서 주는 특별한 상이라 감회가 남다르다”며 “학문의 전당이자 인재의 산실인 서울대에서 상을 받는다니, 큰 선물을 받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홍 회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인으로 중앙그룹을 신문·방송·엔터테인먼트를 아우르는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시켰다”며 “현재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으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대에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혁신기술과 미래를 담당할 많은 지도자가 배출되길 바란다”며 “모교를 가슴에 둔 서울대인, 부끄럽지 않은 서울대인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1972년 서울대 공과대학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주미 한국대사 등을 역임했으며 2002~2005년 아시아인으로는 처음 세계신문협회장을 맡았다.

고 김민기 대표와 정 대표는 각각 예술계와 조경계에서 한 획을 그은 인물들이다.

김 대표는 1978년 서울대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1991년 대학로에 소극장 학전을 개관했다. 이후 약 33년간 학전을 이끌며 예술가들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

## '다섯 딸' 아빠 소방관, 저출생 극복 특진

울산 중부소방서 김주환 소방위



가족사진을 찍은 울산 중부소방서 유곡119안전센터 김주환 소방위(가운데). [사진 울산소방본부]

딸 5명을 둔 다둥이 아빠 소방관이 저출생 문제 극복 공로를 인정받아 1등급 특별승진했다. 울산시는 14일 울산 중부소방서 유곡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김주환(45) 소방장을 소방위로 특별승진시켰다고 밝혔다. 김 소방위는 4살, 6살 쌍둥이, 9살, 10살 딸을 뒀다. 그는 “아이 5명을 키우는 게 쉽지 않은 않지만,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안기면 그렇게 예쁘고 행복할 수가 없다”면서 “아이들을 소중히 더 잘 키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13년 7월 소방관으로 임용된 그는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 염포부두 선박 화재 등 특수재난 현장 활동 공로 등을 인정받아 이날 모범공무원 표창도 받았다.

울산시는 이날 자녀 3명 이상인 공무원 50명을 따로 초청해 ‘다자녀 공무원 격려 도시락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김주환 울산시장은 “전국 최초 다둥이 아빠가 특별승진한 것은 울산시의 저출생 문제 극복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아동수당, 출산축하금,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설 등 다양한 울산형 출생 장려 정책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페어팩스 싱글홈	페어팩스 타운홈	센터빌 타운홈
\$1,250,000	\$750,000	\$699,000	\$569,000
**방4/화3.5/차고2. Many Upgraded. **주인이 잘 관리한 집.	**방4/화3. Ranch 스타일. 0.2 Ac. **굿로케이션, 조용한동네. Move-in Ready	**방3. 화 2.55/차고 2 ** Many Upgraded (지붕, HVAC, 워터히터, Bathrooms)	**방4/화3.5/2 Assigned. 세지붕. ** 지하 Full Bath, Walkout. 업그레이드 Bath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 메디케어!

풍부한 경험과 신뢰의 에이전트

### 프라임 보험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This is an advertisement.

프라임 보험(조앤김)  
상담전화 (703) 861-9923

14641 Lee Hwy #D3, Centreville, VA 20121  
7535 Little River Tupk.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 [ 2025 메디케어 변경 및 등록 ]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4년 10월 15일 ~ 12월 7일

2025년 플랜에 대한 상담 및 등록

- 눈높이 상담 • 쉬운 설명 • 보험료 및 의료혜택 비교

현재 메디케어 플랜 가입자 / 1960년생이신 분들 / 65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파트 A & B	파트 C	파트 D
서플리먼트, 플랜 A,B,G,K,L,N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들	메디케어 (파트 A, B) + 메디케이드 (모든 메디케이드 대상) 추가 혜택 VA 지역, MD 지역

이중 특별 필요 플랜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X] organization which offer [X]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1-800-MEDICARE, or your local Statw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우리말 바꾸기

‘춘향이가’와 ‘춘향이는’

“춘향이가 간다”와 “춘향이는 간다”는 다르다. 느낌만 다른 게 아니다. ‘가’나, ‘는’이나에 따라 문장의 초점이 달라진다. ‘춘향이가’는 ‘춘향’에 정보의 초점이 맞춰진다. 다음 대화에서 더 드러난다. “누가 가는 거야?” “춘향이가 간다.” 여기서 ‘춘향이’가 정보의 중심이란 걸 알 수 있다. ‘가’는 이럴 때 붙는다.

‘춘향이는’은 ‘간다’에 초점이 있다. 다음에서 확인된다. “춘향이는 어떻게 할 거 같아?” “춘향이는 간다.” 이젠 ‘춘향’이보다 ‘간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 보인다. ‘는’은 이처럼 서술어에 초점이 놓일 때 온다. 다음 문장도 그렇다. “춘향이는 그네를 잘 탄다.” 이 문장의 초점은 춘향이에 있지 않고 ‘잘 탄다’에 있다.

“옛날에 몽룡이와 춘향이가 살았다.” 여기서 ‘춘향이’ 대신 ‘춘향이는’이라고 한다면 어색하다. ‘춘향’이 처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앞말이 첫 정보일 때는 ‘가’를 붙여야 자연스럽다. ‘춘향이는’은 ‘춘향이’가 재등장할 때 써야 어울린다. “춘향이가 살았다. 춘향이는 그네를 잘 탄다.” 둘째로 나오는 ‘춘향’이 이미 알려진 정보가 된다. ‘는’은 이럴 때 쓰인다.

“춘향이가 그네를 잘 탄다는 걸 몽룡이는 모른다.” 여기서도 ‘춘향이’가 자연스럽다. “너는 지는 해라”면 그는 뜨는 해다”는 부자연스럽다. ‘너는’은 ‘네가’여야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낯,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양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양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자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유홍주 칼럼

사전 투표율이 높은 미국 대선



유홍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1월 5일 미국 전역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 된다. 현직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중 한 사람이 다음 미국 대통령으로 결정된다.

미국 선거는 한국과 달리 각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으면 그 주의 대통령 선거인단을 모두 싹쓸이 해가는 승자 독식(Winner-takes-All) 시스템이다. 미국의 50개 주와 수도인 워싱턴 DC 중에서 메인 주와 네브래스카 주는 예외적으로 승자 독식이 아닌 득표 비율에 따라 선거인단을 나눠가지는 구조다. 즉 아무리 전체 득표율이 앞서더라도 각 주에서 승자 독식 방식으로 끌어 모은 선거인단(전체 538명)에서 이기지 못하면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전체 득표에서 이겼지만 대통령은 트럼프 후보의 차지였다. 현재 판세는 말 그대로 초반빙이다. 특히 섀벨트와 러스트벨트 경합주의 조사 결과는 동률일 정도다.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투표 의향층 유권자 1348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9~24일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두 후보의 지지율은 49%로 같았다. 노스캐롤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남부 섀벨트 경합주인 조지아주에서 마리스트가 같은 기간 진행한 여론조사(투표 의향층 1220명 대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로 49%의 해리스 부통령과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관의 애리조나주 조사(1264명)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50% 대 49%로 판세가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최종적인 선거 결과는 지지층의 투표 여부에 달려있다. 즉 지지층 투표율이다. 미국 대선에서 후보의 지지층 투표율에 영향을 줄 인물이 등장했다. 바로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다.

스위프트는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 다고 지난 9월 10일 자신의 SNS에서 밝혔다. 스위프트는 “2024년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와 팀 윌즈에게 투표할 예정”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이어 “해리스가 권리와 대의를 위해 싸운다”며 “그들을 옹호할 전사가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국 젊은 층에 영향력이 큰 그가 해리스 부통령 지지 선언을 하면서 초접전 양상인 이번 대선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테일러 스위프트는 젊은 유권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사전 투표를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처음 투표 하는 유권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투표하려면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전 투표는 훨씬 쉬워졌다. 어디에서 등록할 수 있는지, 사전 투표 일정과 관련 정보는 스토리에 올리겠다”고 했다. 즉 스위프트

효과는 ‘사전 투표율’이다.

사전 투표가 절정을 이룬 것은 2020년 대선 때였다. 미국 대선의 사전 투표는 2012년 33%, 2016년 40%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는데, 2020년 대선 때는 무려 69%까지 급증해 사실상 사전선거가 대선의 승패를 갈랐다는 지적이다. 2020년이 코로나 팬데믹 국면이었던 점을 상기한다면 올해 미국 대선에서 사전 투표율이 69%까지 되기는 힘들지만 50%가 넘는다면 해리스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사전 투표율이 50%미만이라면 오히려 트럼프 후보에게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0년의 경우 트럼프 후 보는 우편으로 진행되는 사전 투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또한 우편으로 하든, 직접 투표소에 가든 사전 투표를 하라고 독려하고 있어 이것이 사전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사전 투표율에 결정적 영향을 줄 인물이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다. 약 3억 명에 가까운 SNS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스위프트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를 선택했다.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사전 투표율을 끌어올리는데 일급 도우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위프트가 해리스 후보의 도우미를 자처하며 사전 투표율을 50%이상 견인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지가 최대 변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 남성 유권자들의 반대 급부 결집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래저래 이번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독자마당

곳곳에 사고 위험



우리 주변에는 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매사에 조심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의 사고 통계를 보면 집에서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한다. 대부분은 집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최고 무서운 것이 총기 사고다.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집에 총기를 보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총기때문 아니라 사람의 잘못 탓이라고 항변하지만 총기가 없으면 총기 사고도 벌어지지 않는다.

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식당 바닥에 물을 뿌리고 바닥 청소를 하다 감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식당 주인이 있는가 하면, 2층 베란다에서 무리하게 팔을 뻗어 못

질하다 추락사한 사례도 있다. 이는 작은 부주의나 실수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내가 사는 곳은 4유닛 아파트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세입자의 인종이 모두 다르다. 쓰레기통에는 빈 음료수병과 캔들이 수북이 쌓인다. 나는 빈 병과 캔들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 모아두었다가 일정한 양이 되면 팔러 간다. 운전을 그만둔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병과 캔들을 쇼핑카트에 싣고 간다.

집 앞 인도는 큰 나무들 뿌리 때문에 콘크리트가 튀어 올라와 있어 카트를 밀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카트를 막 도로로 내리는 순간 촛살같이 달려온 차가 카트 앞 모서리를 박았다. 카트와 나, 카트에 있던 물건들은 딱딱한 아스팔트 길 위에 나동그라졌다.

집 앞 도로는 시속 25마일 구간이다. 또 막다른 길이라 차들이 천천히 다니는 길이다. 이 집에서 24년째 살고 있지만 이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난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 내가 밤심했는지 모른다. 사고로 인해 오른쪽 엉덩이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다. 나흘째 걷지도 못하고 있다.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할 일이다.

서호원·LA거주

맛있는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집 파실 분 - 셀러 스페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고가 판매 전문 노하우

1. 집값 - 셀러레포트
2. 홈 인스펙션/Class A Contractor
3. 지붕, 거러, 인스펙션
4. 히팅/에어컨 인스펙션
5. 터미트 검사
6. 홈워런티
7. 현재 소유 보험 리뷰
8. 크레딧 리뷰, 관리 방법

- 페어팩스 싱글 \$795,000  
방 4, 욕 3, 2 리플 싱글, 모놀리스 하이, 495/66/395, 조지타운스 대학, 트윈우즈를 전부 알고싶어! 김모영님 세 지붕, 새 가전, 새 HVAC, 새 화형러벙크, 새 마루, 새 커튼 (지하 방, 모놀리스, 우드 fireplace) 선행, 파리로, 워크아웃
- 폴스처치 콘도 \$249,900  
방 1, 욕 1, 전체 리모델링, 495/66/50, 모자익, 만로행 메트로
- 옥톤 싱글 렌트 \$3,900  
방 4, 욕 2, 차고 2, 아베딩고 넓은 정원, 조용한 동네, 123/66/267/495/286, 메디슨 하이
- 스프링필드 벽돌 타운 렌트 \$3,200  
방 3, 욕 3.5, 차고1, Rolling Rd/286/95/495, Fort Belvoir
- 센터빌 터킨 뒤 오피스 렌트 \$2,100  
1,250 sqft

모든 비즈니스 장소  
찾아드립니다 (매매/리스)  
태권도장, 그루밍, 식당, 치킨, 베이커리, 당구장, 바버, 델리, 요거트, 카페, 병원, 치과  
센터빌 미용실 \$90,000

① 프로협상전문가 ② 공격적 마케팅전문가 ③ 24/7 언제든지 연락가능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⑤ 대기 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쭈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해드립니다

**원더풀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남부 카리브해 크루즈**  
 볼티모어 출발  
 12박13일 12/7~12/19  
**\$1390**부터 (인사이드)

**원더풀투어 Wonderful TOUR**  
 탑여행사 전문 에이전트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703.663.8534**  
 레나 고 윤태웅

**Wonderful TOUR**  
 2024~25 Yearly Schedule

**12월 이태리 일주**  
 밀라노-베니스-볼로냐-피렌체 로마-나폴리, 폼페이, 소렌토  
 \*크리스마스 특선  
 6박 7일 12/23~12/29  
**\$2,390** +항공

**3월 남미 일주**  
 (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13일 3/17~3/29/25  
**\$5,490** +항공

**4월 동유럽 & 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4/30~5/13/25  
**\$4,590** +항공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13일 \$1390부터(인사이드)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6일 \$2390+항공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7일 \$2390+항공

**2025 1월 파타고니아**  
 남극과 가장 가까운 '지구끝' 천국과 우주가 공존하는 여행자들의 지상낙원  
 10박11일 1/14~1/24/25  
**\$6,790** +항공

**3월 브라질 아르헨티나**  
 7박 8일 3/17~3/24/25  
**\$3,190** +항공

**5월 그리스 & 튀르키예**  
 \*산토리니 옵션  
 10박11일 5/6~5/16/25  
**\$2,990** +항공

1/14~1/24 파타고니아 10박11일 \$6790+항공  
 1/28~2/09 신비의 인도 12박13일 \$3390+항공  
 2/04~2/08 코스타리카 4박5일 \$1990(항공포함)  
 2/12~2/23 호주 & 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  
 2/17~2/26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3590+항공  
 2/20~3/05 아프리카 & 두바이 13박14일 \$9850+항공

**1월 신비의 인도**  
 인도의 수도 델리, 타지마할의 아그라, 핑크시티자이푸르, 파테푸르시크리  
 12박13일 1/28~2/9/25  
**\$3,390** +항공

**3월 페루 일주**  
 Hola! 특별한 유산의 나라 페루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6박 7일 3/23~3/29/25  
**\$2,990** +항공

**5월 발칸 크로아티아**  
 아픈 연대사를 안고도 때문지 않은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발칸과 중세도시의 품격 있는 건축물이 압권인 크로아티아  
 6박 7일 5/7~5/13/25  
**\$2,990** +항공

3/17~3/29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13일 \$5490+항공  
 3/17~3/24 브라질/아르헨티나 7박8일 \$3190+항공  
 3/23~3/29 페루 일주 6박7일 \$2990+항공  
 3/25~4/04 고품격 고국일주 1차 10박11일 \$2990+항공  
 3/27~4/05 일본 벚꽃축제 & 맛기행 9박10일 \$3990+항공

**2월 코스타리카**  
 국토가 국립공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멋진 자연풍경을 자랑하는 곳!  
 4박 5일 2/4~2/8/25  
**\$1,990** (항공포함)

**3월 일본 벚꽃축제 & 맛기행**  
 9박 10일 3/27~4/5/25  
**\$3,990** +항공

**5월 스페인 & 포르투갈**  
 10박11일 5/13~5/23/25  
**\$3,390** +항공

4/14~4/20 범방학 특선 남프랑스 6박7일 \$2990+항공  
 4/15~4/25 고품격 고국일주 2차 10박11일 \$2990+항공  
 4/23~5/03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4/30~5/08 정통 동유럽 8박9일 \$3390+항공  
 4/30~5/13 동유럽 & 발칸 크로아티아 13박14일 \$4590+항공

**2월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9박 10일 2/17~2/26/25  
**\$3,590** +항공

**4월 남프랑스**  
 수세기 역사를 보유하고 문화와 예술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의 도시를 한번에 둘러보는 여행  
 \*봄방학 특선  
 6박 7일 4/14~4/20/25  
**\$2,990** +항공

**6월 아이슬란드**  
 지구상의 최북단 청정지역 아이슬란드 빙하, 화산, 온천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 새로운 경험이 되실 겁니다.  
 8박 9일 6/3~6/11/25  
**\$5,690** +항공

5/06~5/16 그리스 & 튀르키예 10박11일 \$2990+항공  
 5/07~5/13 발칸 크로아티아 6박7일 \$2990+항공  
 5/13~5/23 스페인 & 포르투갈 10박11일 \$3390+항공  
 5/20~5/30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5/23~5/26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2월 아프리카 & 두바이**  
 13박14일 2/20~3/5/25  
**\$9,850** +항공

**4월 정통 동유럽**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특급 동유럽 관광은 유럽의 또 하나의 역사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상품입니다.  
 8박 9일 4/30~5/8/25  
**\$3,390** +항공

**6월 스위스 알프스**  
 취리히를 시작으로 바젤-사프하우젠 등 스위스 일주를 한번에~  
 8박 9일 6/10~6/18/25  
**\$4,590** +항공

6/03~6/11 아이슬란드 일주 8박9일 \$5690+항공  
 6/10~6/18 스위스 알프스 일주 8박9일 \$4590+항공  
 6/17~6/27 고품격 고국일주 3차(영예) 10박11일 \$2990+항공  
 6/18~6/29 영국일주 11박12일 \$5890+항공  
 6/24~7/04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6/3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5박6일 \$1690+항공

**한국관광공사 VISIT KOREA YEAR 2024**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한국방문의 모든것!**

**고공격 고국일주** 10박 11일 \$2990+항공  
 4차 10/15~10/25 **파라**  
 5차 10/22~11/1 **파라**  
 6차 10/29~11/8

**특선**  
 1. 워싱턴 최초 디렉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2. 모든 옵션 포함  
 3. 최고급 호텔 숙박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4.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3박 4일 서남권 \$899+항공** 매주 일  
**4박 5일 동해권 \$999+항공** 매주 금  
**5박 6일 서남+제주 \$1499+항공** 매주 일  
**9박 10일 전국일주 \$2149+항공** 매주 일

**TMCI 고국건강검진**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립 \$555/여 \$595 미국국립 \$720/여 \$770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100만원/여 113만원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성극 대니엘** +에미쉬마켓 당일  
 10/17, 11/14, 12/12 \$199

**크리스마스 특선 라디오시티 리켓쇼**  
 일년에 단 한 시즌만 공연하는 미국 최고의 크리스마스 공연 라디오시티 스펙타클러 쇼 관람  
 12/23~24 1박 2일 \$499

**가을 단풍 여행 컴버랜드 기차여행**  
 10/17, 21, 25, 26 \$159

**동부관광** 탑여행사 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뉴욕 브루클린 댐보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토론토 몬트리올/퀘벡 플라즈버그/뉴욕  
 매주 **일출발**  
 5박 6일 \$1350  
 대명성출발: 10/28

**뉴욕 나이아가라** 1박 2일 \$399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일출발** 2박 3일 \$650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DC런치크루즈 \$169(주중) \$199(주말)

**서부관광**  
**미서부 일주**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일주 여행  
**일출발** 8박 9일 \$1500+항공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일출발**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일출발**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일출발**  
**알래스카** 6박 7일 \$1550+항공 **일출발**  
**옐로스톤** 3박 4일 \$930+항공 **일출발**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 교육 & 연예/문화 Sports

중양일보 JoongAng Ilbo

Tuesday, October 15, 2024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 UC의 신흥 명문, 공대·IT가 앞장선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리즈 ③ UC SB, UC 어바인

남가주의 UC(University of California)계 주립대학의 UC샌타바버러, UC어바인은 비교적 새로 시작한 캠퍼스다. 특히 두 학교는 한인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다. 특히 UC어바인은 다른 캠퍼스에 비해서 아시아인의 비율이 높고 소재지인 어바인은 계획 도시로 환경이 매우 좋다. UC 샌타바버러는 자연환경이 매우 좋아서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소문마저 있었다. 두 대학에 대해서 알아본다.

샌타바버러, 히스패닉 중점 대학 선정  
아시아인이 주류인 '어바인' 고속 성장  
대부분 전공들 정상급 성과 자랑할 만

### #UC 샌타바버러(SB)는

태평양 해변에 위치한 샌타바버러에 있는 UC 캠퍼스로 1891년 교사양성학교에서 시작했다. 1921년에 주립대학이 됐고 1944년에 UC 캠퍼스가 됐다. UC 버클리, UCLA에 이어서 3번째 캠퍼스다. US뉴스 대학순위로는 2025년 39위가 됐지만 수년째 다른 UC 캠퍼스인 샌디에이고, 데이비스, 어바인과 옆치락 뒤치락하고 있다. 바로 뒷순위는 공동 37위인 보스턴칼리지와 터프츠이고 공동 33위엔 조지아텍, UC 데이비스, UC 어바인, UIUC(일리노이 주립 어바나 샴페인)가 포진해 있다. 전전 대비해서는 조금 하향으로 보이지만 백지장 차이라고 볼 수 없다. 교직원이나 졸업생중에서 14명이 노벨상을 받았고 수학계의 노벨상이라는 필즈상 수상자도 한 명 있다. 메인 캠퍼스 등 4개의 캠퍼스가 있다. 해변을 끼고 있어서 한때 '파티가 많은 대학'으로 유명했으나 베트남전 시기에는 반전 시위가 가장 극렬했던 대학으로도 악명이 높았다. 2015년에는 히스패닉 중점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런 타이틀은 히스패닉계 학생이 재학생의 25%가 넘어서였다.

### #UC SB의 단과 대학과 구성

5개의 단과 대학으로 이뤄져 있고 87개의 학부 전공, 55개의 대학원 학위과정이 있다. UC에서 6번째로 큰 규모로 1만8000명의 학부생과 3000명의 대학원생이 재학 중이다. 단과 대학은 다음과 같다. 문리대(L&S), 공과대학, 창조학대학(College of Creative Studies), 전문대학원으로 브렌 환경과학 및 경영대학, 게버츠 교육대학원으로 나뉜다. 또한 문리대는 3개의 디비전으로 나뉜다. 인문학 디비전은 예술, 고전, 동아시아어 및 문화, 영어, 사학, 언어학, 음악, 철학, 연극영화 등 22개의 학과와 프로그램이 있고 수학-생명과학-자연과학 디비전은 수학, 분자과학, 지구과학, 지리학, 물리학, 통계학 등 11개의 학과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과학 디비전은 고고학, 아시아아메리칸학, 경제학, 정치학, 국제학, 사회학 등 11개의 학과와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UC 샌타바버러에서 가장 인기있는 단과대학이 바로 공과대학이다. 1966년 설립돼 기초와 응용이 어우러진 통섭학문을 지향한다. 학부생은 1800명이



UC어바인의 수 앤드 빌 그로스 간호대의 수업 현장. UC어바인 헬스시스템은 의대, 간호대, 약대, 공공보건대로 구성되어 있다. [UC어바인 홈페이지]

고 대학원생은 700명 수준이다. 2023년 가을학기에 발표된 라이든 랭킹에 따르면, 공립대학 공학 및 물리학 피인용 논문수가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재료 및 화학공학 분야는 공립대학에서 최정상급이다. 전공은 화학공학, 컴퓨터 사이언스, 재료학이다. 창조학대학은 모두가 '학부생을 위한 대학원'인 소수정예를 지향하는 특별한 단과대학이다. 재학생은 350명이고 교직원수는 60명이다. 신청서는 연중 접수된다. 전공은 아트, 생물학, 화학 및 생화학, 컴퓨팅, 해양과학, 수학, 음악작곡, 물리학, 작문과문학 등 9개 전공만 있다.

### #UC SB 신입생 프로파일

2022년 입시 결과, 합격률은 25.8%이고 4968명이 신입생 등록을 했으며 평균 GPA는 4.29에 달했다. 다만 공대 합격률은 상당히 높아서 컴퓨터 공학은 7%, 전기공학은 9%, 컴퓨터 사이언스는 5%에 달한다. 재학생의 인종 구성은 백인 30%, 히스패닉 25%, 아시아인 18%, 유학생 13%, 흑인 2%, 기타 12%다. 중산층 이상은 69%, 저소득층은 31%다.

### #UC어바인은

UC 캠퍼스중 비교적 최근인 1965년에 설립됐다. UC어바인의 '어바인'은 어바인시가 아니고 학교 부지를 기증한 부동산회사인 '어바인컴퍼니'에서 따온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어바인컴퍼니와 기업형 계획도시로 조성하면서 1971년 어바인시를 만들었다. 한인이 무척 많이 거주하고 그림같은 풍경, 온화한 기후 덕분에 부유층이 선호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개발 도시이다. 높은 교육열과 낮은 범죄율로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꼽힌다.

장병희 기자

▶ 2면 'UC'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 1석 5조 통합보험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Life Insurance 생명보험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5 in 1**

MetLife, Genworth Financial, Prudential, Pacific Life, Zurich, Nationwide, Lincoln Financial Group, AIG, MassMutual, Aetna, Allianz, Accordia Life, Columbus Life Insurance Company, ISW, National Western Life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장기 간호 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개인 건강보험 (Personal Health Ins.)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주택/비즈니스 용자
-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 (Medicare)

로리 문 | Cell. 703-895-7648 | send2lorimoon@gmail.com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 “휴머노이드는 로봇의 미래... 발전 속도에 나도 깜짝 놀란다”

휴머노이드 로봇(Humanoid robot). 인간의 신체 형태를 닮은 로봇을 말한다. 일본 혼다의 아시모(2000)와 우리나라 KAIST의 휴보(2004)가 일찍부터 사람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왔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사람 동작의 어설플 흉내 정도였다. 실제 세상에서 ‘쓸모’ 있는 활동을 하는 건 산업용 로봇팔을 비롯, 로봇인지 알아차리기도 어렵지만 특정 기능만을 수행하는 ‘기계로봇’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와중에도, 과학기술은 발전한다. 2021년 현대차가 인수한 미국 보스턴다이나믹스의 로봇들은 진화를 거듭해 뛰고 구르고 공중제비돌기까지 한다. 보스턴다이나믹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달 25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휴머노이드가 3~5년 내 공장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의 테슬라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뛰어 들었다. 지난해 말 공개한 2세대 옵티머스도 지금까지 휴머노이드 중 사람과 가장 닮아 화제가 됐다. 이런 로봇들이 이제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과 협업을 시작하고 있다.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로봇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얘기다.

공상과학(SF) 속 미래는 언제 현재가 될까. 지난 달 26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성균관대학교 경기청년창업축제’에 기조강연자로 온 데니스 홍 미국 UCLA대 기계항공공학과 교수를 만났다. 그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로봇 공학자다. 지난 20년간 대학 내 로봇연구소인 로벨라에서 첨단 휴머노이드 로봇 아르테미스를 비롯, 다양한 로봇들을 개발해 오고 있다. 그에 게 어느덧 인류 앞에 다가선 휴머노이드 로봇의 미래를 물었다.

세계 최고 따라잡는 중국기업  
-아르테미스에 대해 소개해 달라. 어떤

로봇 석학 데니스 홍 UCLA 교수  
세계 최고 2족 보행 로봇 개발  
“로봇 상용화에선 중국이 으뜸”  
한국, 연구 위한 장기 투자 부족

로봇이고, 언제부터 개발했나.  
“전기식 모터로 작동하면서 두 다리를 걷고 뛰는 것에선 세계 최고의 로봇이라 자부한다. 휴머노이드 로봇대회나 로봇 축구대회에서 늘 전 세계 1등을 해왔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걷는 속도가 초당 2.1m의 속도로,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 물론 이후 중국 로봇기업 유니트리(UNITRI)가 우리를 따라잡긴 했다. 조만간 우리가 다시 따라잡을 것이다. 지금은 두 다리로 걷고 뛰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 안전하게 넘어지고 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진화할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열풍이 뜨겁다. 왜 휴머노이드인가.  
“모든 로봇 공학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휴머노이드다. 이 세상은 두 팔과 다리를 가진 사람이 살고 움직이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다. 지금은 한계가 있지만, 결국 로봇의 개발 방향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는 시간이 다들 뿐이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다. 2014년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서 주관한 재난구조 로봇대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한계를 목격하고, 이후 여기에 대한 관심도 식고 연구를 위한 펀딩도 급감해버렸다. 하지만 2021년 일본 머스크가 옵티머스 로봇을 공개하면서 다시 휴머노이드 로봇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마침 기술적으로 휴머노이드가 가능한 요소기술도 나오기 시작했다. 로봇의 손과 팔을 정밀하게 움직이게 하는 머



지난달 26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성균관대 경기청년창업축제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한 데니스 홍 미국 UCLA대학 교수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르테미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신러닝(machine learning)과, 하체의 힘과 탄성을 조절할 수 있는 (모터 기반) 액추에이터(actuator), 즉 구동장치 기술이 그거다.”

-보스턴다이나믹스의 로봇도 있지 않나.  
“그간 아틀라스가 뛰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해보였다. 하지만 그건 실용적인 로봇이 아니다. 유압의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힘이 뛰어나지만, 시끄럽고 뜨겁고 위험하다. 정말 제품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연구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보스턴다이나믹스도 최근 전기식 모터로 움직이는 로봇을 내놨잖나.”

-최근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중국, 정말 장난 아니다. 요즘은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로봇 스타트업이 나오고 있다. 기술도 어마어마한데다, 값도 싸다. 소비자가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로봇으로는 중국이 가장 앞섰다고 할 수 있다. 작년 베이징에서 열린 월드로봇컨퍼런스(WRC)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중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중국의 다음 대세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공식 발표하는 걸 들었다.”

-아르테미스로 직접 로봇회사를 만들어도 될 텐데.  
“이것도 사실 오픈소스로 할까 생각 중이다. 아내가 싫어하지만... (웃음) 나는 돈 버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다. 연구의 결과로 논문을 발표하고 공개해서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영향력 있다고 생각한다. 제자 중에 창업한 사람도 많고, 성공한 사례도 있다.”

일본-한국, 휴머노이드에서 뒤쳐져  
-일본엔 일찍부터 혼다의 아시모가, 한

국도 휴보가 개발됐는데.  
“이미 옛날 세대 로봇들이다. 단순히 걷는 것에서 벗어나 역동성이 들어가야 하는데, 방식 자체가 다르다. 걸음걸이가 다르지 않나. 옛 방식에 잡혀 있어 기술적인 점프를 하지 못했다. 한국은 협동로봇 등 다른 쪽은 괜찮은데, 휴머노이드 쪽은 최근 수년간 너무 뒤쳐졌다는 느낌이다.”

-왜 그럴까.  
“이런 첨단기술은 기업보다는 연구소 연구자들이 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비 투자가 필요하다. 한국은 연구를 장기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다.”

-로봇기술도 인공지능처럼 인간을 넘어서는 ‘특이점’(singularity)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걸까.  
“똑같은 질문을 2년 전쯤 받았다면 ‘그건 과장된 얘기’라고 할 텐데, 최근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서로 맞물리기 시작했다. 게다가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흥칫 놀랄 때가 많다. 하지만 그 특이점이 언제 올 것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을 아끼겠다. 나도 틀릴 때가 많고, 그게 언제가 될지 알 수도 없다. 난 그런 예측에 좀 보수적인 편이다.”

최준호 과학전문기자-논설위원

◆데니스 홍=1971년생. 한국계 미국인 로봇공학자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초·중·고를 다녔다. 고려대 기계공학과 3학년 때 미국 위스콘신대로 편입해 학부를 마치고, 퍼듀대에서 기계공학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UCLA대 기계항공공학과 교수 겸 로벨라연구소장으로 있다. 박정희 정부 당시 백공 미사일을 개발한 1세대 유체과학자 홍용식(1932~2022년) 인하대 교수의 차남이다.

## ▶1면 'UC'에서 이어집니다

US뉴스 2025년대학순위에서 조지아텍과 함께 공동 33위에 올랐다. 함께 공동 순위에 오른 대학은 UC데이비스, UIUC다. 바로 뒷순위인 공동 30위에 텍사스주립 오스틴, 플로리다 주립, NYU가 있다는 것은 연륜에 비해 매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공립 아이비’라는 항목에서는 가장 짧은 역사의 학교로 돋보이고 있다. 졸업생 중 노벨 수상자도 이미 3명이나 배출했다. 학부 전공 중 톱

50위내에 드는 것은 AI, 생물학, 경영학, 화학, 컴퓨터 사이언스, 범죄학, 지구과학, 경제학, 영어학, 교육학, 공학, 미술, 사학, 물리학, 정치학, 심리학, 공공보건학, 사회학, 수학, 통계학 등이다.

### #UC어바인의 대학 구성

신생 캠퍼스라서 단과대학이 매우 분화돼 있다. 개교시 시작된 인문대학은 문화, 사학, 언어, 문학, 과학, 기술, 철학, 비평 등을 다루는 13개 학과 20개 전공, 풀러리지경영대학은 2008년

부터 학부생을 받기 시작했다. 4개 전공으로 나뉜 생명과학대학, 헨리 사무엘리 공대는 생의학공학, 화학공학, 도시및 환경 공학, 기계및 항공공학, 재료 과학및 공학학과가 있다. 자연과학대는 물리및 천문학과, 수학과, 화학과 지구시스템공학로 구성돼 있다. 사회과학대는 7개학과 11개 학부 전공으로 구성돼 있다. 인류학, 인지과학, 경제학, 논리 및 철학, 정치학, 사회학 등이 포함된다.

이후에 설립된 교육대는 교육공학과에서 학부생을 뽑는다. 클레어 트레

버 예술대는 아트, 댄스, 드라마, 음악을 공부한다. 사회환경대는 범죄학, 법과사회, 심리학, 도시계획학, 공공정책학과로 구성돼 있다. 학부생은 2500명이고 대학원생은 300명이며 교직원 70명이다. 도널드 브렌 정보및 컴퓨터 과학대는 2002년 당시 UC에서 보기 드문 컴퓨터 전문 단과대학으로 출범했으며 컴퓨터 사이언스, 정보학, 통계학과로 구성돼 있다. 도널드 브렌은 2004년 2천만 달러를 기부했는데 어바인컴패니 대표다.

이후 수 앤드 빌 그로스 간호대

(2007), 약학 및 약학과대학(2020), 조셉 C원 공해 및 공공보건 대학(2024)이 속속 신설돼 학부생을 뽑고 있다.

이외 전문대학원으로 법과대학원(2007)과 의과대학원이 있다. 의과대학원은 UC어바인 메디컬센터를 소유하고 있고 OC어린이병원과 제휴관계다. 원래 1896년 AC무어가 세운 의과대학원이 모태로 1967년에 UC어바인에 합류하면서 UC샌프란시스코, UCLA에 이은 UC의 3번째 의대가 됐다.

장병희 기자

##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 신제품 세종 후코펫

- ✔ 5가지 특수영양성분, 3가지 기초영양성분으로 개발
- ✔ 면역력 관절 시력건강을 위한 가루타입의 특수영양제
- ✔ GMP 의약품 제조기술로 최적의 효능을 이루도록 개발

**주요 성분**

Fucoidan: 항종양 효과, 면역력 증대, 체질개선 효과  
 Bilberry Ex: 뛰어난 항산화 작용, 시력건강, 소화기능 강화  
 Glucosamine, Chondroitin: 관절염, 관절건강 증상완화, 통증완화  
 L-Arginine: 혈관확장, 혈류흐름, 해독작용, 활력강화, 성장기 골격형성

하루 1스푼 5g (1개월분)

Sejongbiotech, Inc. **세종바이오텍**

www.sejongbiotech.us | www.sejongbiopet.us

# 703-256-7671

##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축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플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쉬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 “아이부터 노인까지 평생 교육... 하이브리드 대학 전환”

## 성경릉 상시대 총장

“문만 열어도 학생이 구름처럼 모여 들던 20세기 대학 모델은 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 죽은 모델에 집착하면 지방 대학 부활은 불가능하다.”

강원도 원주시 상시대 성경릉 총장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수많은 지방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총장은 “대학위기를 극복하려면 대학은 교육만 하는 곳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라며 “새로운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독자적 재정수입을 확대하는 ‘21세기형 확장적 하이브리드 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상시대 집무실에서 성 총장을 만나 대학 비전을 들어봤다.

“지방대학 소멸을 극복하자며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는데.

“만 18~21세 청년과 내국인 학생에 한정된 채 강의실 교육에만 의존하는 ‘자폐적’ 대학 모델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 국민과 외국인까지 폭을 넓혀 학생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개방적·확장적 하이브리드 대학 모델’을 대학 비전으로 설정할 것이다. 이제 인구폭증 시대에 유효했던 자폐적 대학 모델이 수명을 다한 만큼 인구격감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신형 대학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확장적 하이브리드 대학은 무엇인가.

“세계 첫 한류·한상 단과대학 설립이 대표적인 예다. 한류 팬 2억2500만명과 한상기업(해외동포기업) 8만4000여개 등 해외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 교육 대상은 유학생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등 해외 한상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



지난 8일 상시대 총장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성경릉 상시대 총장이 ‘21세기형 확장적 하이브리드대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상시대]

다. K-한국어, K-문화, K-의료, K-스포츠, K-경영 등 5대 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다. 영어·한국어 수업과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동시통역 수업을 진행하고 학기 중에는 온라인 수업을, 방학 때는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교육 방식을 구상 중이다.”

“아시아 한류 연합대학과 공동 학위제도 추진하는데.

“동남아시아 등 해외 대학과 학생 교류 정책에도 변화를 주겠다. 2+2, 3+1 등 기존 학점 교류 방식에서 벗어나 전면적인 공동 학위제를 도입한다.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해외 대학과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기적인 글로벌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전공 이수학점 축소 등 한류·한상 단과대학의 유연한 학사제도와 접목하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

## 20세기 폐쇄적 대학모델 소멸 중 외국인 학생 확대 등 개방형 추진

## 세계 첫 한류·한상 단과대학 설립 전 연령대 온·오프라인 교육 계획

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AI(인공지능)를 가장 잘 활용하는 대학을 선언했다. 대책은 뭔가.

“AI 활용 역량 교육을 강화하면 뛰어난 미래 발전 프로젝트 기획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전면적인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학습하고 정보를 공유, 공동 목표를 향해 협력하면 개인이 도달할 수 없는 ‘팀 천재성’(team genius)에 도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지대를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대학’으로 만들겠다.”

“전 국민 평생교육 대학으로 전환방안은.

“대학은 청년만 다니는 곳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에 전 연령대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에게는 미래 직업탐색 기회를, 여성과 가정주부에게는 경력단절 극복 교

육과 취업 교육 서비스를, 직장·중장년 층에게는 직무역량 교육과 직무전환 교육을, 노인층엔 건강관리·사회적 교류 기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전 국민 맞춤형 평생교육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

“시니어 주거·돌봄·배움 공동체(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y: UBRC)는 어떻게 만드나.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하지만 노인 주거와 돌봄 시설은 부족하다. 단순 돌봄과 고가 실버타운으로 양극화된 상황에서 상지대가 보유한 넓고 쾌적한 캠퍼스 공간과 한의대·한방병원·간호·보건의료·물리치료·식품영양·사회복지·체육 등 다양한 학과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대학이 시니어 주거와 돌봄 공동체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캠퍼스에 만드는 ‘기업도시’는 어떤 형태인가.

“상시대 캠퍼스 또는 상시대 소유 대학 부지를 활용해 대학-기업 연계형 기업도시를 드는 것이 목표다. 원주 기업도시 소재 기업과 일반 기업이 협업을 통해 상시대 감점 분야인 문화·영상·디자인·의료·건강·생명과학·디지털·인공지능 등의 분야와 연계해 기업도시를 설계할 계획이다. 전공 분야와 연관성이 높은 기업·연구개발센터 유치에 공동 연구개발·교육·학생 인턴십·경영교육 등과 같은 산학협력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박진호 기자

## ◆성경릉 총장=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행정학 석사, 스탠퍼드대 사회학 박사, 제1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제7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등을 지낸 뒤 10일 제9대 상시대 총장에 취임했다.



성경릉 총장이 상시대 캠퍼스를 거닐며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 상시대]

## 김상현의 과학산책

## 작은 물방울

1976년 8월 25일,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에 볼프강 하켄(1928~2022년)이 모습을 드러냈다. 124년 묵은 난제 ‘4색 문제’의 풀이를 발표하기 위함이었다. 소문을 듣고 몰려온 청중들로 대형 강의실은 발 디딜 틈 없었다. 수학사의 극적인 순간이었다. 문제의 시작은 어린 아이의 색칠 공부와도 같다. 밀그림 위에 색칠할 때 규칙은 하나다. 두 영역

사이에 경계가 있다면, 두 영역의 색깔은 달라야 한다. 세계지도에서도, 국경을 조금이라도 공유하는 두 나라는 다른 색으로 칠해야 한다. 영국의 수학 애호가 프란시스 거스리는 1852년 재미있는 제안을 한다. 혹시, 네 가지 색깔만으로도 모든 지도를 칠할 수 있을까? ‘4색 문제’의 탄생이다.

이후 100여 년이 흐른 1960년

대, 독일의 수학자 하인리히 헤슈(1906~1995년)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한 국가를 중심으로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한 단계씩 다른 색깔을 칠하다 보면 4가지 색만으로 세계지도가 채울 수 있다는 논리다. 지도가 넓어질 수록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컴퓨터를 이용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



까지 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독일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 한편, 헤슈의 강연에서 큰 감명을 받은 미국 수학자 하켄은 동료들과 협업을 시작한다. 결국 미국 정부의 슈퍼컴퓨터 지원에 힘입어 하켄이 헤슈의 예측을 실현한다. 문명사의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었다. 전통적인 수학 문제를 컴퓨터로 해결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이

다. 이후 모든 수학사 교과서에는 하켄이 등장하게 된다. 다만 안타깝게도 헤슈의 이름은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 풀이의 자양분이 되고 나서 잊히는 업적이 수학에서는 드물지 않다. 우리의 문명은 거대한 생각의 바다다. 영웅의 업적은 범선처럼 웅장하게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깨달음이 이들을 떠받치고 있다. 물방울이 모이지 않는다면, 위대한 항해의 서사도 있을 수 없다.

고등과학원 수학부 교수

#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모십니다!



“정성과 돌봄이 중요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양질의 한식과 간식
- 최고의 시설 (1인/1실)
- INOVA 병원 5분 거리
- 한국 TV 시청 가능
-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문의 703-980-9890

# 산삼

하늘이 내린 최고의 명약  
미국 가장 청정지역 West Virginia에서  
저와 현지인이 직접 캐온 야생 산삼입니다.  
“30~40년 이상의 최상급 산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역력 | 항암효과 | 당뇨 | 혈압 | 체력증강

1/2 Pound \$600부터

Dealer No. 90-491972 • Permit No. 007669

문의 (571) 236-8591

14800 Rydell Rd., Centreville, VA 22121



대입 들여다보기

# 과외활동도 9·10학년은 열정 발견 시기...11·12학년엔 좋아하는 2~3가지에 집중

명문대 입시에서 과외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솔하게 들어봤을 것이다.

물론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 성적이다. 대학이 고등교육 기관인 만큼 대학의 학업을 소화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합격은 요원해진다. 그러나 톱 대학의 지원자들은 학업 능력이 검증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GPA와 표준시험 점수 등 우수한 성적이 기본이라는 전제하에 특히 신입생 선발 기준이 높은 대학들의 입시에서는 과외활동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많은 학생과 학부모는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최고의 과외활동이 될까' 궁금해한다. 대학들은 신입생을 선발할 때 집단적 균형을 추구한다. 그 이유는 건강하고 다양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해서 학생들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은 다재다능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런 신입생을 찾는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스포츠, 음악, 미술, 연극, 기업가정신, 봉사정신, 외국어, 토론, 시 등에 모두 탁월한 것이 가능한가? 그런

천재형 인간을 대학은 바라지는 않는다.

신입생 한 명이 한 두 가지, 또는 두세 가지 영역에서 특별한 열정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신입생을 모든 영역에서 다수 선발해서 캠퍼스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대학의 목적이다. 마치 각기 다른 악기를 탁월하게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떤 접근 방식을 가지고 과외활동 계획을 짜야 할까?

앞서 언급한 대학의 의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양보다 질이라는 점이다. 여러 가지 활동을 얹게 손을 대는 것보다 몇 가지 활동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편이 훨씬 낫다.

고등학교 시기에서 학년별로 나눠보면 9학년과 10학년 초는 탐색기다.

관심이 가는 활동들을 이것저것 해보면서 무엇을 할 때 자신이 가장 즐겁고 의욕이 넘치는지 발견해야 한다. 고등학교에 수많은 스포츠팀과 로보틱스 클럽, 스피치&디베이트 클럽, 연극과 합창, 댄스, 마칭밴드, 사이언스보울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재미있을 것 같은 클럽 몇 개를 9학년

초부터 시도하는 것이 좋다. 몇 개월 하다 보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활동을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일부 학생들은 어떤 활동을 해오다가 중단할 경우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가 아깝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내가 관심 없는 활동을 오래 지속한다면 개인의 성장은 물론 대학 입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쓰느라고 진정으로 재미를 느끼는 활동을 깊이 있게 하지 못하게 된다.

일부 학부모들은 궁금해한다. 자녀가 스포츠를 싫어하는데 그래도 어릴 때부터 해왔으니 지속해야 하고, 이왕 모의 유엔에 발을 들여놓았으니 대학 입시 때까지 끌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열정이 가지 않는 분야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좋아하는 것을 발견해 그 경험을 통해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강력한 에세이를 쓸 만할 스토리가 나올 수 있다. 9학년과 10학년이 관심사와 열정을 발견하는

시기라고 한다면 11학년, 12학년 때는 내가 좋아하는 2~3가지 활동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

오래 열심히 해왔다면 리더십 역할을 맡거나, 확장성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나 지역 커뮤니티에 발전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간과 깊이가 쌓여서 나의 레주메가 강력해진다.

어떤 엘리트 대학도 학생으로부터 천재적 재능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신입생 대부분이 전형적인 10대 시기를 거치면서 평범한 10대의 생각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한 개인으로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큰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시도하고 실패하고 실패하는 도전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자기 자신에 대해 잘 파악하고 속고 하며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이처럼 고도로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을 개발해 내가는 것이 대학 입시에서도 최고의 과외활동으로서 빛을 발할 것이다.

빈센트 김·어드미션 마스터즈 카운슬러

에듀 포스팅

# 11학년 때 대학 지원, 시간 절약 장점 ...성적·추천서·리더십은 충분한가 따져야

고등학교 11학년도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가? 대부분 대학 지원은 고등학교 12학년들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끔 11학년 학생들이 1년 일찍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11학년에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결정에는 여러 장단점이 따르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1년을 일찍 지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이런 계획이 있다면, 미리부터 졸업에 필요한 과목을 철저히 이수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명문대학 지원도 가능하지만, 2023~2024년 입학 주기의 입학률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12학년에 지원하는 것보다 경쟁이 더 치열할 수 있다.

### ▶11학년 지원의 장점

대학에 1년 일찍 입학하면 대학원 진학이나 직장 생활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장점일 것이다. 만약 현재 고등학교에서 배울 과목이 없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아카데미한 문제는

학교에 따라선 조금 다를 것이다. 만약 자신의 고등학교에서 모든 AP 과목과 대학 수업과 동일한 수학 과목들이 제공된다면 굳이 이런 수업을 다른 데서 더 들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 ▶11학년 지원의 단점

명문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일수록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고등학교 4년을 마친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AP 과목 개수와 AP 시험 성적, SAT성적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수학에서 Multivariable Calculus나 Differential Equation과 같은 수준 높은 과목을 수강했다면, 11학년 지원서가 더욱 설득력 있어 보일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과목 외에 온라인 과정이나 대학 강의를 수강했다면, 자신의 학문적 호기심을 보여줄 기회가 되어 12학년 학생들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 ▶고려해야 할 사항

이러한 학문적 우수성을 갖춘 학생이라면, 먼저 어떤 대학들이 11학년 학생들의 지원을 허용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나 전공과목에 맞는 얼리 지원 기회와 입학학을 미리 조사한다면 더욱 경쟁력 있는 지원서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성적뿐만 아니라, 특별활동, 수상 경력, 리더십 경험 등도 철저히 준비해 12학년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미국 대학은 졸업 요건을 충족한 학생이라면 11학년 지원도 허용한다. 대학 입학 지원서에서 고등학교 4년을 반드시 마쳐야 한다는 명시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11학년이 끝난 여름방학부터 지원서를 준비하지만 1년 일찍 지원하는 학생은 10학년이 끝난 여름부터 지원서를 준비해야 하며, 그만큼 충분한 특별활동과 성숙한 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추천서 준비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추천서는 더욱 신중하게 준비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선생님은 고등학교 4년을 마친 학생들을 위해 추천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시간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학생을 알아갈 기회가 더 있어 학생에 관한 자세한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다. 10학년을 마친 후 추천서

를 요청하는 경우, 교사가 학생을 충분히 잘 알지 못한다면 추천서가 단순히 성적에 관한 내용이나 일반적인 평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천서는 대학 입학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적표에 이미 드러난 성적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추천서의 가치를 낮추기 때문이다.

### ▶대학 생활의 준비

대학은 특히 명문대일수록,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조기에 지원하는 학생은 독립적이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기숙사 생활이나 학업, 개인적인 일들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성숙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 ▶추가적인 고려 사항

1년 일찍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 절약을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높은 자율성과 성숙함이 함께 요구되는 도전적인 일이다. 자신이 준비되었는지 진지하게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하며 또한, 대학 입시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업적 성과 외에도 의미 있는 특별활동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경험을 충분히 미리부터 쌓아야 한다.

수빈·원장 보스턴 에듀케이션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 메디케어

변경기간: 10월 15일 ~ 12월 7일

# 오바마 헬스케어

등록기간: 11월 1일 ~ 1월 15일

“개인보험, 그룹보험 플랜변경 및 새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사업체보험



집보험



생명보험

19년의 경험으로 여러분과 함께한 KWAK & CHANG FINANCIAL INC.

## 에이전트 모집

건강보험 (치과, Vision), 401K, Pension 제공  
경험없으신 분 환영, 라이선스 도와드립니다.



대표 **곽민우**

“언제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 곽민우 종합보험

KWAK & CHANG FINANCIAL INC.

Office : 703-750-2205, 2206

Fax : 703-750-2207

Email : kcfinancial.info@gmail.com

7369 McWhorter Pl. #420, Annandale, VA 22003



# 이라크전 '왼쪽 날개' 승우 아니면 준호다



8인조 그룹 '수니와칠공주' 멤버인 서무석 할머니(가운데)와 동료 래퍼들. [사진 철곡군]

## '할매래퍼' 서무석 할머니 암 투병 중이었다

“랩을 하니 너무 행복해서 암에 걸린 것을 숨겼습니다.”

평균 연령 85세의 8인조 래퍼 그룹 '수니와칠공주'의 멤버 서무석(87) 할머니가 암 투병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8월부터 래퍼 활동을 하던 서 할머니는 몸의 이상을 느껴 검진한 결과 지난 1월 림프종 혈액암 3기 판정을 받았다.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서 할머니는 가족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암 투병 사실이 알려지면 수니와칠공주 활동을 더는 하지 못할 것 같아서였다.

수니와칠공주는 'K-할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경북 철곡군의 래퍼 그룹이다. 철곡군 지천면 신4리에 사는 할머니들이 한글 공부부터 인터넷에서 랩 공연을 접했고 한글 선생님에게 랩을 배워 그룹을 만들었다.

그러다 지난 6월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 입원했다. 서 할머니의 장녀 전경숙(65)씨는 “랩을 하면서 웃고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말할 수가 없었다”며 “어머니는 이 땅에서 평생 누리지 못한 천국 같은 1년을 보내고 랩을 하는 행복감으로 암을 이겨내며 6개월을 더 살고 계시다”고 말했다.

김정석 기자

20대 젊은 피 이승우(26·전북)와 배준호(21·스토크시티)가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울버햄프턴)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지난 10일 요르단과의 원정 경기에서 2-0으로 완승했다. 이 승리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경쟁에서 선두(2승 1무·승점 7점)로 뛰어올랐다. 아울러 지난 2월 아시안컵 4강전에서 완패(0-2)했던 빛을 깨끗하게 닦았다.

승리는 달콤했지만, 뼈아픈 손실도 있었다. 부상으로 빠진 주장 손흥민을 대신해 왼쪽 날개로 선발 출장한 황희찬이 상대 팀의 거친 파울에 발목을 다쳐 전반 23분 만에 교체됐다. 왼쪽 공격수 역할을 물려받은 엄지성(스완지 시티)마저 무릎 부상으로 후반 5분에 벤치로 물러났다.

두 선수는 11일 귀국 직후 실시한 정밀검진 결과 부상이 심한 것으로 확인돼 엔트리에서 빠졌다. 홍 감독은 두 선수를 대신해 이승우와 문선민(전북)을 추가로 발탁했다.

15일 오후 8시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이라크와의 B조 4차전은 북중미월드컵 본선행의 분수령이다. B조의 판세가 대한민국과 요르단, 이라크의 3파전으로 좁혀진 만큼 홍명보호가 요르단에 이어 이라크마저 잡으면 조 1위로 본선 직행 가능성이 커진다.

축구대표팀의 공격진의 두 기동 손흥민과 황희찬이 한꺼번에 빠진 왼쪽 측면 공격을 이끌 대안으로는 이승우



이승우	배준호
전북현대	소속팀 스토크시티(잉글랜드)
1998년 1월 6일 수원	출생 2003년 8월 21일 대구
1m70cm, 63kg	체격 1m80cm, 70kg
윙어,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 윙어, 공격형 미드필더
오른발(양발)	주발 오른발(양발)
테크닉, 득점력, 탈압박	특징 드리블, 득점력, 탈압박
U-17월드컵(16강), U-20월드컵(16강)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우승) 러시아월드컵(본선)	주요 경력 U-20월드컵(4강)
11경기 출전	A매치 경력 3경기 1골

와 배준호가 첫 손에 꼽힌다. 두 선수 모두 공격 지역에서 여러 포지션을 맡을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다. 창의적인 움직임과 탈압박 능력, 골 결정력 등 다채로운 재능을 겸비한 것도 공통점이다. 배준호가 드리블 돌파 등 직선적

인 움직임에서 앞서지만 이승우는 밀집한 상대 수비진 사이를 파고드는 테크닉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상대 팀 이라크는 견고한 방패가 강점이다. 아시안컵 본선 이후 치른 7차례의 A매치에서 단 1실점(13골)만 기

록한 잔물 수비로 무패 가도를 질주(6승 1무) 중이다. 서로 비슷한 듯 다른 이승우와 배준호가 각자의 장점을 살려 제 몫을 해준다면 홍명보호의 득점 루트가 훨씬 다양해진다.

두 선수의 약점은 A매치 경험이 적다는 것이다. 이승우는 파울루 벤투(포르투갈) 전 감독 시절이던 2019년 6월 이라크와의 A매치 평가전 이후 5년 4개월 만에 대표팀 유니폼을 다시 입었다. 배준호는 지난 6월 A대표팀에 처음 발탁돼 A매치 경험이 3경기에 불과하다. 하지만 20대 초·중반인 두 선수가 이라크전에서 활약하면서 홍명보호에 뿌리를 내린다면 한국 축구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손흥민 이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요르단전 후반에 교체 출장해 합격점을 받은 배준호가 이라크전에서도 왼쪽 날개로 선발 출장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요르단전에 불참한 이승우가 장거리 비행과 시차에 따른 체력 소모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두 선수의 역할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재성(마인츠) 등 다른 선수를 교체하면서 두 선수가 나란히 그라운드를 밟는 그림도 가능하다.

이승우는 13일 대표팀 훈련에 앞서 “지난 5년간 이 순간을 간절히 기다려왔다”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유감 없이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배준호는 “형들과 경쟁한다기보다는 함께 뛰면서 시너지를 낼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송지훈 기자

## 김민별, 한풀이 첫 우승... '무관 신인왕' 꼬리표 떴다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신인왕 김민별(20)이 마침내 첫 우승을 차지했다.

김민별은 13일 전북 익산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9개를 잡아낸 끝에 총점 49점으로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1억8000만원. 방신실(20)이 함께 47점으로 2위, 정윤지(24)가 45점으로 3위에 올랐다.

이 대회는 타수로 우열을 가리는 스트로크 플레이가 아니라 점수 합산으로 순위를 매기는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앨버트로스는 8점, 이글은 5점, 버디는 2점을 받고 보

기는 -1점, 더블보기 이상은 -3점을 매겨 성적을 결정한다. 버디나 이글을 잡아야만 점수를 얻을 수 있어 선수들이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친다.

3라운드까지 31점으로 공동 5위를 달렸던 김민별은 마지막 날 보기 없이 버디만 9개를 잡아낸 끝에 역전 우승했다. 4번 홀(파3)부터 7번 홀(파4)까지 4연속 버디를 쏴내 담아 단독선두가 됐고, 파4 9번 홀에서도 2m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가장 먼저 40점을 돌파했다.

김민별을 1점 차이로 추격하던 챔피언 조의 방신실은 15번 홀에서 보기를 기록해 1점을 잃은 뒤 16번 홀(파3)에

선 3m 버디 퍼트를 놓쳐 점수를 얻지 못했다.

춘천여고를 나온 김민별은 지난해 황유민(21), 방신실과 함께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황유민이 1승, 방신실이 2승을 거두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이 김민별은 한 번도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나 김민별은 신인상 포인트 경쟁에선 가장 많은 2969점을 기록해 2656점의 황유민과 2399점의 방신실을 제치고 최고의 루키로 뽑혔다. 올 시즌에도 김민별은 상위권에 여러 차례 입상했지만, 우승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52번째 대회에서 마침내 정상에 올랐다. 고훈준 기자

김민별은 “올 시즌 성적이 좋지 않아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오늘 우승으로 다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어릴 적부터 나를 믿고 응원해주신 부모님과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를 이끌어준 언니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울먹였다.

한편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백송홀딩스-아시아드CC 부산오픈에선 장유민(22)이 함께 9언더파 275타로 동갑내기 장희민(22)과 공동 선두에 오른 뒤 연장전 끝에 승리를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 올 시즌 2승째를 거둔 장유민은 우승 상금 2억원을 받았다. 고훈준 기자

구독 문의: 703-281-9660

#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 척추 한방 클리닉

### 교통사고/척추통증전문

첨단 물리치료 시설 및 X-Ray 시설완비

**진료 안내**

-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 두통, 목, 허리 디스크, 안면 신경마비
- 각종 신경마비 및 근육, 관절 통증 질환
- 한방 치료 (침), 마사지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의  
한 의사 (NCCAOM)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걷기 좋아하시는 분 형사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장먼저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은 절로써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Tel: (703) 354-8686 | 전화예약 바랍니다.**

• 애난데일 중앙일보 3층 •  
7023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10월 구인광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사업체 매매**

이준식 부동산

1. Seafood Carry Out
2. Pickup Store(bowie) \$30,000
3. Single House Rent \$3,200 (Catonsville).방4, 화3+1/2

문의

**301-768-1240**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구인**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 ◎ 구매부 0명
- ◎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경험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문의

**301-477-4710**

LÖ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향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کم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라이센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Chantilly

SPECIAL EVENT  
**BUY ONE WHOLE CHICKEN GET ONE Free**

571-752-6417

92 Chicken KOREAN STYLE  
13966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한달광고 유료계재, 내용 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증지를 원하실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 메릴랜드지역

### 구인/사무/직원모집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세일즈 구합니다. 경쟁력있는 보수(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방문 세일즈 경험자, 경력자우대(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세일즈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 (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 바랍니다. 571-332-2101(문자요망)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리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 지역, MD - 경험 많은 Handyman - Part Time Office 관리자 -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 지역, MD - 사무보조: 이종언 어가자 \*PT 20~35HR: \$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301)333-2209

MD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종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롯데플라자 마켓 분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 업무: 사무직원(서류관리 및 인보이스 등) - 시간: 주 32~48시간(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인출고 관리 - 시간: 주 48~52시간 - 유경력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롬비아 이종언어, 신분에 걸려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하실 폴/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컷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우대. 숙식도 가능. 메릴랜드 콜롬비아 410-961-3012

▶▶메릴랜드 JESSUP-화장품출세일 (NYX L'OREAL) 세일즈(남)구함/풀타임, 컴퓨터사용가능한 성실하고 참신한분.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 식당/델리

▶▶엘리컷 시티 Cafe June 에서 풀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력자 443-310-9247

▶▶엘리컷 시티 장수 설렁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캐쉬어/경력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 사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 세탁소/기타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컷 시티, MD)

▶▶픽업바느질하실분(파트타임)/엘리컷 시티 410-926-3200

운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기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으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컷 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MD 아룬델밀 샵센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 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각: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 싱글/타운/콘도 방렌트

저먼타운 방1 욕실별도, 금연자 깨쓰한 콘도/노인우대 단기 702-622-8853

엘리컷 시티-롯데에서 10분 거리/타운 홈 2층방/유모/가구일체/교통편리/남자분 원함 443-631-7866

▶▶엘리컷 시티 타운 홈 렌트 메릴랜드 10Th Street. 방3개, 화장실/샤워 넓고 잘가꾸진 집. 롯데/한아름 5분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 방2/부엌1/화장실1/출입문 별도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 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 환경, 최고 학교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 곳. 싱글 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 근처 싱글 홈 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 교통편리, 싱글 홈, 큰방, 욕실, 유모, 인터넷, 가구, 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3-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룸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 출입문별도. 부엌, 욕실, 거실 등, 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 마켓 5분거리) 문자요망 202-985-919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안트 옆 - Sea Food 매대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 장점 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스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결정 당일 현금 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 버지니아 지역

### 구인/사무/직원모집

▶▶1. 세라미스트 첫 3개월 연봉 12만 2. CAD/CAM 경력자 첫 3개월 연봉 6만 703-597-0955 (문자요망)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wjkim0111@gmail.com

도개비 척추신경 병원 직원 구합니다. 페어팩스/파트타임, 풀타임 / 이종언어 가능/dkbclinic@gmail.com 757-384-5757

▶▶1. LED Light 세일즈 2. Electrician 배우실분. 202-993-8870 (문자요망)

▶▶LORTON 헤어제품 수입 회사 세일즈 창고에서 오전: 고객 오더 접수 오후: 노던 버지니아 지역 및 메트로 지역 담당 관리. 영어/불어 우대 이력서 jintva@hotmail.com 703-864-6641 John Lee 문자요망

김서규 공인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 업무 하실 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서 가능합니다 경력자 우대 합니다. Resume: skim@skimcpa.com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구매부 0명/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유경험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301-477-4010

정광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h0123@gmail.com

▶▶Smart Insurance P&C (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 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금 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종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 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 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 마켓 분사 인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 디자이너를 구합니다. ■모집부문: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 분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애난데일 공인회계사 사무실 경험자우대, Benefit,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명, 패킹/포장팀 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된 분 ceo@hanmipost.com \*스폰 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 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학생 및 유/무 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능자, 취업비자/영주권 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 콘도 4채 매매 렌트수입 증음!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 Cash Only

AGENT 환영  
문의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0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광고한달유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중앙일보

**ASL Division Manager:**  
에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메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JTBC -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  
다직'을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무조건: 풀타임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 코디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버지니아 한의과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 571-243-4251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rehab16@gmail.com  
▶ 703-865-6455

나투라치와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급,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토랑/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 703-256-3005/703-830-099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703-850-1100/703-963-1234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 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 식품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합니다.  
연락처 703-712-7089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시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시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숙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  
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현존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서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 92차선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 알렉산드리아 MATSUI 일식당에  
서 풀타임 스시맨 구합니다!  
703-888-6627 (MR. 노)

▶▶ Honest Grill 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543-2320

▶▶ 텍사스드넛센터빌베이커조구함(아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 이미용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토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에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셔니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 세탁/엘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킹 하실  
분/파/풀 타임(문자요망)**  
703 608 5183

▶▶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배킹, 프레스,  
빨래/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 (컴퓨터, 엘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소들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 자동차/정비/바디샵

**2006 Toyota Sienna**  
20만6천마일, 703-825-0852(문자)

**포드 광통벤 냉장됨, 18만, 12년,  
굿 컨디션. \$8,500.**  
240-796-0093

▶▶ 자동차 정비 매케너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준메케닉,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에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  
클리닝)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니저 (VA)  
▶ 301-537-3800

**No.1콜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 571-591-4455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 기타/구인/청소

▶▶ VA 스프링필드/페어팩스 지역,  
밤청소 하실분  
703 980 1917

**골동품 이조기구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가능, 일본물건도 있음.**  
240-796-0093

**버크태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박스배달요원을 구합니다.**  
애널빌.운전가능자  
571-242-3736

**알렉산드리아 치매치킨 훔벌아서해주시분**  
(703) 473 6022.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남여노소 환영.**  
703-424-8596

**필그림유치원 교사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합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경력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 싱글/타운하우스렌트

▶▶ 싱글홈 지하렌트 워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와슈어,  
66번가 가까운 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 703-489-6926

▶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 703-477-3114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음)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앤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71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교 \$3,300  
571-567-5797

## 콘도 렌트

▶▶ 에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 가스비 포함되  
어있음). H-Mart 가까이. 교통편리.  
703-477-3114.

▶ 아난데일 H마트 옆, 방1, 가구완비,  
남여 직장인/유부/\$800  
703-350-1986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이, 전용주차장 2대, \$2,200**  
▶ 703-477-3114

**에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주5일 DELI \$68,000**

**렌트 \$3500 CAM포함.**

**주매상 \$5천**

**MD, PG카운티, MGM에서 10분거리**

**703-395-3123**

CoSTAR GROUP POWER BROKER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광고한달유료게재, 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C11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removal 포함됨)  
▶703-477-3114

## 방렌트

애난데일에 위치한저택렌트합니다. (알링턴2마일, DC7마일). 3층, 7베드룸과 7베스전체7500+sf의아름다운집입니다. 크레딧없는분도가능합니다. 월\$7,495. 문의 703-244-3453

▶▶노바조지메이슨5분, 우스하이15분 도보거리/리모델링/새집같은단독주택/방1, 지하워아웃/화장, 욕실, 거실, 부엌, 단신남자환영/10/27일입주가능  
703-425-9075

설악가든근처 싱글홀방1, 화1. 방장고, 간단가구 인터넷출입문별도  
금연자즉시입주  
571-243-6295

아난데일 한강위방1/화1 즉시입주가능  
703-395-4380

홀다포뒤 방렌트 주차장 넉넉, 출입문 별도  
571-237-3411

▶▶타운하우스 방1/욕실/유포 센터빌트데근처  
571-970-8048

▶▶아난데일 아파트/한강위/여자분 원함 /큰방+Full Bath+간단취사  
571-217-7155

▶▶아난데일마트옆방1/여자분 환영  
703-505-5698

▶▶방세놓음 맥클린 싱글하우스아래층방 3개 전체 리모델링했음 직장인이나 학생구함 교통아주 좋음 워싱턴 실버라인 걸어서 7분에서 8분거리타이스코너근접  
703-307-2473

▶▶교통 편리한 아난데일 단독주택 넓은 지하방 렌트.  
703-559-5607

센터빌 스톤로드 선상-타운홀 안방+ Full Bath 금연자/단기 렌트 가능  
929-424-2221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703-489-6926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Annandale 방 렌트: townhouse 밝고조용한 윗층방 or walkout basement with a private bathroom, 마루, 유포함, 교통편리함 여자분 원함. 문자보내주세요.  
571-345-8879

▶▶아난데일 노바 3분거리. 조지메이슨 대학 5분거리, 반지하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가능.  
703-598-6087

▶▶1. 아난데일 한강식당뒤 싱글홀 방 렌트 돌침대/가구/화장실/ 즉시 입주가능  
703-395-4380

▶▶첼틀리 타운하우스 반지하 워아웃 인테넷, 가구, 가전, 주방일체 포함 \$900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571-429-2222

▶▶열린문 교회근처 싱글하우스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조지메이슨 노바 5분거리 반지하 \$900/부엌/화장실/출입문 별도/마루바닥/유틸리티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싱글홀 지하렌트 조지메이슨근처 워아웃, 방2, 거실, 화장실, 풀키텐, 워시어드라이어  
703-898-3838

Burke H-Mart 10분거리 2층 타운홀 취사, 가구 즉시입주 가능 방 1 \$600 방 2 \$1000 여자분 한함/문자바람  
703-678-7833

▶▶아난데일 예촌근처 반지하 전체 방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아난데일 예촌 앞 출입문 별도 방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2-2033

애난데일 지역 싱글홀, 방1개 렌트  
▶703-470-5238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2 부엌 욕실등(문자요망)  
202-985-9191

##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문자주세요)

## 부동산 매매

## 사업체 매매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홀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4, 화4, 편리한 램블러스타일  
2.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쇼핑몰,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홀 위층방3개, 화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방2개, 사무실, 화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문의)

## 부동산/사업용 매매

▶▶앤지 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워키 | DC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Seafood 매매 Woodbridge VA \$165,000, Open: Mon-Sat (6일 근무) 자기사업에 관심있는 분 연락주세요!  
703-967-3963

이준식 부동산  
1.seafood carry out  
2.pickup store(bowie) \$30,000.  
3.single house rent(Catonsville) \$3,200. 방4 화3,1/2  
▶703-768-1240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평룸,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오토 리페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셜 좋음  
매매-\$38만(실 바이어 Only)  
571-242-3736

##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썰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장소: 버크레이크 헬터 / ·시간: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트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 inyeolchoi@hotmail.com

## 중고품/기타매매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무빙세일 역 이민 가구 및 생활용품을 정리.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서랍장 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요망)

##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송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Out), 벽 메인 터너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사이드 / 메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텍,그외모든공사,주정부라이선스보유,책임보험가입,카톡아이디: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사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이웨이애셋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페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타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달라,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가정용/산업용  
▶문의: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롤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산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롤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배우면서 일하실분/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 카펫,에어덕트 클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밍,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풀 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우 왁스  
▶703-967-4155

##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이삿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창고 보관  
▶703-550-5550

##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화장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밥-청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라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뜰만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생활안내 줄광고 유료 게재요청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

###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 냉·난방

###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 건축 / 페인트

# TK 종합건축

Since 1988

###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 레드문 페인트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러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 라돈 가스 검사/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 MD 업소 안내

## 냉난방

## 소독

###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 보석

## 건축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http://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mailto: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http://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mailto: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Kathy: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me a hand with this table.  
캐시: 탁자 옮기는 거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Adam: Don't mention it.  
애담: 고맙기는.  
Mike: Glad we could help.  
마이크: 도움이 됐다니 기쁘네.  
Adam: Where's the table going?  
애담: 탁자는 어디로 가는 거야?  
Kathy: I'm giving it to a day care center.

캐시: 데이케어 센터에 줄 거야.  
Adam: Are you going to get another table?  
애담: 다른 탁자를 들여놓을 거야?  
Kathy: Yes. It's being delivered tomorrow.  
캐시: 응. 내일 배달 올 거야.  
Mike: Wow! This table weighs a ton!  
마이크: 아야! 이 탁자 엄청 무겁다!  
Kathy: The new table I'm getting is much lighter. It weighs a feather.  
캐시: 새로 가져오는 탁자는 무게가 훨씬 덜 나가. 아주

가벼워.  
Adam: Is the truck in the driveway?  
애담: 탁자를 옮길 트럭은 차고 진입로에 있어?  
**기억할만한 표현**  
▶ give (one) a hand: (누구를) 도와주다.  
"I'll give you a hand with those bags."  
(그 백들은 제게 맡기세요.)  
▶ don't mention it: 고맙기는 천만에.  
Jim: "Thanks for helping me yesterday."

(something) weighs a ton: 아주 무겁다  
(Kathy's friends are helping her move a very big table...)  
(캐시가 굉장히 큰 탁자를 옮기는데 친구들이 도와준다...)  
(잠: 어제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Roger: "That's okay. Don't mention it."  
(로자: 괜찮아. 고맙기는.)  
▶ (someone or something) weighs a feather: (누가 무엇이) 아주 가볍다.  
"Models and dancers weigh a feather."  
(모델과 무용수들은 몸이 아주 가볍습니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가로열쇠

(1)낙담에 있었다고 하는 전설적인 북. 외적이 침입하면 저절로 울었다고 하죠 (3)아내와 함께 동행함 (5)배가 나온 사람 (7)주이나 경계를 하도록 요란한 소리를 내는 장치 (9)아내의 죽음을 당함. 상처 (11)경마나 곡예 따위에서 말을 타는 사람 (13)집안 살림에 쓰이는 기구 (14)겨울 동안 졸곤. ~ 움츠리고 있던 산수유 꽃망울이 드디어 터지기 시작할 것이다 (16)해산물을 파는 가게 (17)번개가 친 다음에 하늘에 크게 울리는 소리 (18)가난에 시달리며 고생하는 아내 (20)장터나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동냥하는 사람 (22)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짚은 것 (24)뿔나무 발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됨.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 □□백□ (26)돈이나 재물 따위를 쓰는 데에 몹시 인색한 사람 (27)눈 속에서 파는 꽃. 지심도, 선운사 등이 유명하죠. 칼바람을 맞으며 선혈처럼 붉게 태어난 ~/송이째 툭툭 떨어져 온전한 꽃망울이 슬프도록 아름답다(왕대석)

세로열쇠

(1)자신이 스스로 그린 자기의 초상화 (2)쓴 술

스도쿠

	2	4					5	
9			5					
				9		7	2	8
6			3					
		1			6	8		
	9	2			7			
8	2				9		6	3
				5	3	2	8	
3			9		4	6		2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문제가 스토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1	2	3	4	5	6	7	8	9
6	4	8	2	3	5	1	9	7
3	5	9	1	6	7	4	2	8
8	9	1	5	7	3	2	6	4
2	3	6	8	9	4	7	1	5
5	7	4	6	2	1	3	8	9
4	8	2	7	5	6	9	3	1
9	1	3	4	8	2	5	7	6
7	6	5	3	1	9	8	4	2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input type="text"/> EXP. DATE: / month year CVS: <input type="text"/>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병원 리셉션 및 간호사**  
폴/파트타임  
풀러턴 지역  
한국면허 인정  
(714)389-7000  
stemsmedical@gmail.com

**스시쉐프-폴타임**  
경력자 우대  
(951)225-2212

**덴탈랩(밸리)**  
월매상\$17,000, 기\$5만5천  
주인은퇴 (213)269-7802

**잘되는 옷수선 전문점**  
급귀국 양도매매, 맨하탄버치  
(213)268-9946

**us.srotech.com**  
차콜온돌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사람을 찾습니다.

오랫동안 연력이 깊어 소식을  
알 수 없는 이들을 찾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많이 위독합니다.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소식 주사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이름 : 심 종철  
외국 이름 : Antonio 심  
나이 : 1975년생  
연락처 : 작은 아버지  
(213)905-3874  
(818)454-8332  
Yongsok45@gmail.com

매매

**치과 급매(4곳)**  
파트너쉽도 가능  
\*1년 Income  
-Riverside(1.6M)  
-Fullerton(1.3M)  
-Upland(1.3M)  
-San Diego(0.6M)  
현재 3곳은 흑자회사임  
(949)668-8580 문자

기타 지역

구인

**아침 양식쿠킹/달리버러**  
특별우대, 숙식제공  
가족같이 오래 계실분  
알래스카 식당  
(907)545-5933

##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위트리

## 개인 / 비즈니스 / 융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융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융자, 카드융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헛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융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산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융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융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잡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달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703-8809, papaaaa.com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www.koreadaily.com

## Leisure World Seal Beach, CA

###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 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함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매달리치마 샵

## 9월 햅산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햅세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검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췌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 2024 야생 햅산삼을 소비자와 함께 공동 구매합니다.

# 야생 햅산삼 공동구매

지금까지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심마니 가격 450g  
한/정/판/매

- 대 \$1,400 (450g)
- 특대 \$1,800 (450g)
- 중 \$1,200 (450g)

## 비즈니스 홍보 걱정 끝 ~

중앙일보 '안내광고'가 있잖아요.

The JoongAng  
Korea Daily 중앙일보 Tel. 213.368.2525

##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미주 동시어??!!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The JoongAng Chicago  
The JoongAng New York  
The JoongAng Washington DC  
The JoongAng Atlanta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http://www.HANKOOKMOTORS.com)

#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